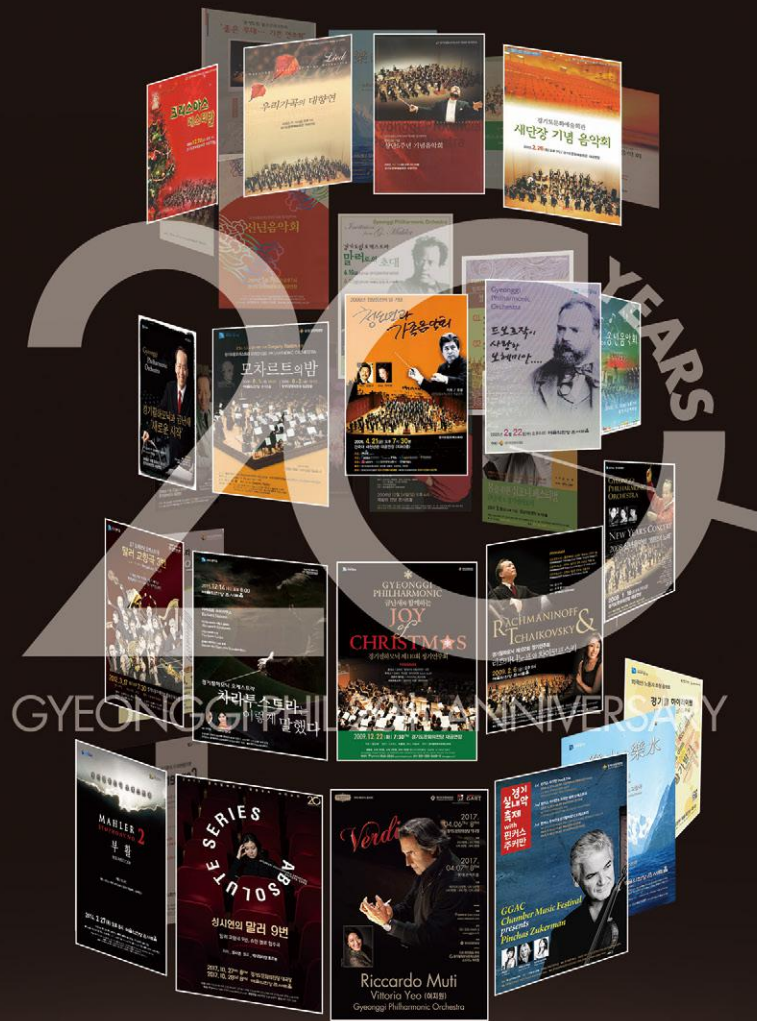


10+11

예술과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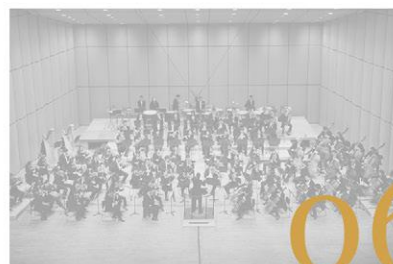
2017 OCTOBER + NOVEMBER | VOL. 128
GYEONGGI ARTS CENTER MAGAZINE



CONTENTS

Focus

- 06 **Focus Image**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주년
- 08 **Focus Column**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한민국 오케스트라 문화의 자존심
경기필의 첫 20년에 대한 회고
- 12 **Focus Interview**
20년 차 선후배의
음악으로 나누는 대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요한, 김인경 상임단원



Stage

- 18 **주목, 이 공연 I**
따뜻함을 따라, 햇살을 따라,
어린 악사 모비치가 찾아온
가슴 뭉클한 그것
시(詩)음악극 <작은 악사>
- 20 **주목, 이 공연 II**
말러, 그리고 성시연
<성시연의 말러 교향곡 9번>
- 24 **주목, 이 공연 III**
매혹적인 여인들 조 선 가. 회.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서
대중을 사로잡다
<윤중강과 함께 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 28 **주목, 이 공연 IV**
온 몸의 감각을 일깨울
그녀의 가장 빛나는 레퍼토리
조수미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
-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10, 11월 공연
-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부활한 윤이상, 축하하는 베토벤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 34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당 타이 손이 연주하고
김대진이 지휘한 쇼팽의 밤
제4회 피스&피아노 페스티벌
<피날레 콘서트>

Interview

- 38 **GGAC가 만난 사람 I**
한영애의 바람은 계속된다
가수 한영애
- 42 **GGAC가 만난 사람 II**
'다른 듯 같은 듯'
미래를 꿈꾸는 우리
지휘 이규성, 거문고 공영은,
바이올린 김영지
- 46 **예술가의 방**
관객 마음을 품어 소통으로 꽃핀
경기도립무용단 <판>
스테이지에 선 단원들
- 50 **타인의 취향**
책부터 공연까지! 욕심쟁이 문화꾼
경기도문화의전당 <모니터-G>
활동가 안준희 씨

38



Story



- 54 **예술, 수작을 걸다 I**
국악, '밀당의 기술'이 필요하다
- 58 **예술, 수작을 걸다 II**
한국 대중음악 공연의
어제와 오늘
- 62 **예술과 인문학**
원작의 힘 ;
무대에서 만나는 원작들
-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Talk

- 67 **예술, 더하기**
- 68 **GGAC News**
- 70 **공연 캘린더**

Editor's Letter

하늘거리는 블라우스 자락에서
계절이 실어 나르는 바람을 가늠합니다.
길게 머물 줄 알았던 더위는 어느덧
잊혀지고 아름답게 물든 잎들이 일상을
뒤로 하고 콧바람 쐼자고 마음까지 흔듭니다.
<예술과 만남>에 그 설렘을 달랠
풍성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경기필하모닉이
말러 스페셜리스트 성시연지휘자와 함께
들려줄 <말러 9번>을 비롯해
도립극단의 <윤이상: 상처받은 용>
대학로 예술극장 앙코르공연, 도립무용단이
시리트로 선보인 여섯 번째 <판>,
도립국악단의 경기새천년 국악프로젝트
<향화>. 다양한 콘서트와 기획공연,
문화나눔공연까지.
공생과 상생이 존재하는 삶에 스며들어
가치를 더해 드리고 싶습니다.

발행인 정재훈
편집인 정재훈
편집장 임선미
기획·취재·편집 조영아
편집위원 신혜원
이경원
전윤희
박혜은
조아라

발행처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전화 031-230-3244

팩스 031-230-3275

이메일 magazine@ggac.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매드

F

O

U

S P E C I A L
T H E M A

S

06

Focus Image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주년

08

Focus Column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한민국 오케스트라 문화의 자존심
경기필의 첫 20년에 대한 회고

12

Focus Interview

20년 차 선후배의
음악으로 나누는 대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요한, 김인경 상임단원

20 YEARS

GYEONGGI PHIL 20th ANNIVERSARY

1997. 10

1997년 10월 1일 창간된 경기팝스오케스트라는 1대 예술감독 최선용을 필두로 정원 70명의 규모로 구성되었다. 훗날 세계적 오케스트라, 경기필의 탄생을 예고하는 순간이었다.

70 concerts a year

경기필은 '마스터시리즈', '세대공감시리즈', '실내악시리즈' 등 매년 7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며 역량과 기획력을 과시하고 있다.

20 years

예술 감독 1대 최선용, 2대 유광, 3대 금난새, 4대 구자범, 그리고 5대 성시연. 어느새 세계 무대에 우뚝 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세 푸른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106 member

70 → 90 → 106
뛰어난 연주력과 체계적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정원을 확대 재편성하며 현재 106명 4관 편성의 대형 오케스트라의 형태를 갖추었다.



경기팝스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한민국 오케스트라 문화의 자존심 경기필의 첫 20년에 대한 회고

글 박제성 음악 칼럼니스트

폭발적이고 혁신적인 한국 오케스트라의 흐름에 가장 앞장서는 오케스트라를 손꼽으라면 단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다. 1997년 10월 창단된 경기팝스오케스트라를 모체로 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창단 당시 오페라와 발레 등 무대 공연 반주와 팝스 콘서트 등 대중적인 공연을 주로 담당했고, 2009년 6월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창단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탄탄한 위상을 드러내며 아시아 주요 오케스트라로 도약하려 한다.

한 국가나 도시의 문화적 척도로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 문화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이 교집합으로 만나는 중요한 거점지역들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사회적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 도시에는 항상 오페라와 더불어 오케스트라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기 마련이다. 그 지역의 시민들로서는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온 고전문화, 특히 오케스트라 예술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고 이를 공연할 수 있는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적 연대감이 생성되어 있기에 이를 일종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넘어서서 일찍이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여 매우 튼튼한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는 일본이나 21세기 접어들어 총력을 기울여 저변과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는 중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3국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치열한 오케스트라 문화운동을 겪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시작된 오케스트라 문화는 세기 내내 오케스트라 문화의 기틀과 예술적 근간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했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수준의 오케스트라 기준을 충족하고자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몇 한국 오케스트라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유럽 무대에서의 연주회와 국내 애호가들의 인정을 통해 그 성과를 확인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폭발적이고 혁신적인 한국 오케스트라 문화의 흐름에 가장 앞장서는 오케스트라를 손꼽으려면 단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Gyeonggi Provincial Philharmonic Orchestra)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경기필하모닉은 경기도의 대표적 오케스트라로서 시립 단위의 오케스트라와는 달리 도가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단체다. 경기필은 처음부터 필하모닉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고 1997년 10월 1일 창단된 경기팝스오케스트라를 모체로 하고 있다. 당시 1대 예술감독은 최선용으로서 정원 70명의 규모로 구성된 경기팝스오케스트라는 오페라와 발레 등의 무대 공연 반주와 팝스 콘서트 등의 대중적인 공연을 주로 개최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04년 7월 2대 예술감독으로 유광이 취임하며 경기필하모닉은 비약적인 발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2005년 3월 경기팝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을 경기 도립 오케스트라로 바꾸면서 본격적인 콘서트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기 시작, 단원 규모도 90명으로 증원하여 오케스트라 레퍼토리와 스케줄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후 2006년 10월 3대 예술감독으로 금난새가 취임하며 본격적인 콘서트 오케스트라로서의 연주력과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고 마에스트로의 실력과 명성에 따라 악단의 인지도 또한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경기필하모닉의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이 시기로서, 2008년 6월에는 경기 도립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을 벗어나 보다



1대 예술단장 최선용



2대 예술단장 유광



3대 예술단장 금난새



4대 예술단장 구자범



5대 예술단장 성시연



2016년 솔로모민츠 초청공연



2016년 케이트 로열 협연

세계적인 보편성과 경쟁력에 기준을 맞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2008년에는 미국 투어(LA월트디즈니홀, 월세이벨극장)와 중국 투어, 2009년에는 중국 투어(상하이, 베이징, 항저우, 수저우, 닝보), 2010년에는 이탈리아(볼로냐, 피스토이아, 치비타베키아, 치비달레)와 슬로베니아 투어를 나서며 본격적으로 세계 속의 경기필하모닉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2009년 6월에는 악단의 운영주체가 경기도에서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바뀌며 예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4대 예술감독으로 구자범이 취임, 2012년에는 정원이 90명에서 106명의 4관편성으로 확대 재편되었다. 오페라나 다른 기획공연도 꾸준히 연주하여 대중적인 명성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연주력 모두를 쌓아가는 동시에 연주 레퍼토리로 훨씬 전문적이고 다양해져서 명실상부한 '필하모닉'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예술적 수준을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경기필을 응원하는 팬덤이 형성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의 일로서 창단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루어낸 극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1월 5대 예술감독으로 성시연이 부임했다.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를 거쳐 경기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등극한 성시연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경기필하모닉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성시연은 악단의 체질을 현대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구조적으로는 부지휘자로 정나라를 선발하고 악장으로 정하나를 중심으로 수석들과 단원들의 실력을 높이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고, 음악적으로는 기존의 정기 연주회 형식에서 벗어나 마스터스 시리즈와 애플루트 시리즈를 도입, 보다 적극적인 레퍼토리 개발과 연주력 향상을 도모했다. 그리고 협연자 선정도 케이트 로열이나 솔로모민츠, 빌데 프랑과 같은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을 초청,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적극적이었다. 운영 면에 있어서도 세계 속의 경기필하모닉을 만들기 위해 해외 투어를 기획,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4년 일본 아시아 오케스트라 워크 투어와 2015년에는 독일 투어(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국내 예술단체 중 최초로 공연, 비스바덴 쿠퍼하우스, 자를란트 뮤직 페스

티벌 초청)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6년에는 통영 국제음악제 개막 공연 및 ISCM(국제현대음악협회) 공연에 참가하여 국내 국제 음악제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는 국내 오케스트라로서는 보기 드물게 세계 최고의 전설적인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티를 초청, 오페라 아카데미와 콘서트를 병행하여 경기필하모닉 본연의 연주력과 무티의 황홀한 음악세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경기필하모닉의 주요 공연장은 수원 의전당 대공연장이며,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과 롯데 콘서트홀을 비롯해 고양 아람누리극장 등 경기도의 다양한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게 된 것 또한 경기필하모닉만의 인기비결로 손꼽힌다. 뿐만 아니라 경기필하모닉의 이름을 달고 신예 음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휘, 작곡 마스터 클래스와 젊은 청중을 위한 키즈 콘서트 및 청소년 음악회, 행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신년 음악회, 수많은 외부 문화 복지 공연 등을 열어 다양한 계층의 청중을 모으는 동시에 문화적 척도로서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는 모범적이고 계몽적인 역할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말에는 국내 오케스트라 최초로 클래식레이블 데카(DECCA)를 통해 말러 교향곡 5번을 녹음, 발표하여 경기필하모닉과 성시연이

이룬 최고의 음악적 업적으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전폭적인 지지와 청중들의 사랑, 음악가들과 지휘자, 악단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지난 4년 동안의 작은 기적이다.

2017년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창단 20주년을 맞는 해로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지난 3월에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과 6월에는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연주한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윤이상 음악회, 10월에는 말러 교향곡 9번, 12월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에는 세계 최고의 명성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인 베를린 무직페스트에 초청을 받아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두 번째로 연주회를 갖는 동시에 폴란드 국립방송국의 초대로 폴란드 카토비츠에서 연주회를 여는 등 유럽 투어도 나선다. 이러한 경기필하모닉의 현재는 성시연의 탁월한 리더십과 예술성, 오케스트라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빚어낸 전무후무한 예술적 성취로서, 향후 더 높은 수준의 지원과 차원을 달리하는 예술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지난 경기필하모닉의 뜨거웠던 첫 20년은 앞으로 펼쳐질 영광스러운 두 번째 20년을 보장하기에 모자람이 없기 때문이다.



2017 리카르도 무티 아카데미 콘서트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말러 5번

20년 차 선후배의 음악으로 나누는 대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요한, 김인경 상임단원

20년이라는 시간은 어디에 대보아도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시간이다. 경기도민의 삶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채워주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가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이했다. 20년의 세월 동안 변화를 거듭한 것도 많지만,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도 많다. 특히 오케스트라를 채워 주는 단원들의 구성이 그렇다. 창단 멤버로 들어와 20년간 오케스트라와 역사를 함께 한 선배와 지난 2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경기필의 단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낸 까마득한 후배가 공존한다. 같은 관악기를 다루면서 20년의 시간차를 양상볼로 좁히고 있는 이요한, 김인경 상임단원이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

강산이 두 번 변했다. 1997년 10월 경기팝스오케스트라로 창단된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두 번의 강산이 변하는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 경기팝스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이 경기도립오케스트라를 거쳐 지금의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로 변했고, 다섯 번째 예술단장을 맞았다. 100여 명 단원들의 이름도 바뀌어 갔으며, 매년 다른 주제와 콘셉트를 가지고 연주회가 펼쳐지고 있다.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기필이 추구하는 앙상블의 매력일 것이다. 연간 7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면서도 흐트러지거나 불협화음을 내는 일이 없다. 최고의 실력은 물론, 경기도민과 섬세하게 호흡하며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만큼은 20년 세월이 무력할 만큼 한결같다.

클라리넷 파트의 터줏대감인 이요한 상임단원은 지난 20년간 경기필과 같은 시간을 걸어왔다. 어느덧 최고참 선배가 되고 보니 신입 단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단원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새로 들어온 단원을 유심히 살피게 돼요. 관심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죠. 어떤 후배일까, 라는 생각보다는 같은 연주자로서 실력이 궁금하고, 관심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면 모두 같은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차, 선후배,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요한 상임단원(1997년 입단) | 클라리넷 파트

그렇다면 입단 1년 차, 오보에 파트를 맡고 있는 푸룻푸룻한 후배 김인경 단원에게, 같은 관악기 파트로서 음악적으로 조우하고 있는 이요한 상임단원은 어떤 선배일까.

“막내다 보니 선배님들께서 먼저 챙겨주셔서 함께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오케스트라 생활이 처음이어서 혹시나 실수하거나 불편하게 헤드리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울 뿐이죠.”



김인경 상임단원(2016년 입단) | 오보에 파트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앙상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의 목관군은 악단의 중앙에서 전체 연주에 활기와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네 악기가 어우러져 비로소 하나 된 선율을 만들어낸다. 그중 오보에와 클라리넷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이 있다. 오보에는 숨을 불어 넣는 마우스피스에 두 장의 리드가 있으며, 동양적인 음색이 특징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클라리넷의 음역 폭이 더 넓다.

지난 1년간 목관 파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온 두 사람 역시 성격도, 모습도 다르다. 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는 오직 연주를 통해 대화하고 교감하기 때문에 그들의 앙상블만큼은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오케스트라는 개개인의 나이, 실력, 성격이 아니라 전체의 일원이 되어 이루는 조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곳에서 연주하는 동안만큼은 직함이나 나이는 모두 잊고 오직 서로 간의 호흡과 전체 앙상블에만 집중해야 하죠.”

지난 2016년 입단한 김인경 단원은 유학을 준비하던 중, 오디션 공고를 보고 지원해 경기필의 가족이 되었다.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첫출발이 순탄했던 셈이다. 반면, 이요한 단원은 유학을 다녀온 후 잠시 몸담았던 오케스트라에서 만난 최선용 초대단장을 따라 이곳에서 새 음악 인생을 시작했다. 지금은 입지가 높아졌지만, 당시에는 맨땅에 헤딩하듯 처음부터 다져나가야 하는 곳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젊음과 음악 인생을 모두 바친 것이다.

“제 삶의 절반 가까이를 여기에서 보냈는데,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표했던 많은 것들을 이뤘고, 또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꿈꾸게 됐어요.”

20년의 시간만큼이나 첫걸음을 내딛는 1년의 시간 역시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김인경 단원에게 무수한 실수와 긴장, 그리고 땀과 함께 보낸 지난 1년은 어떤 의미일까.

“한 마디로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 선배님들께 하나하나 배우고, 저 스스로도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선배님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성장하신 것처럼 저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음악 인생을 펼쳐나가고 싶어요.”



음악으로 행복을 주는 경기필로 놀러 오세요!

이어서 같은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함께 음악을 하는 선후배로 궁금하거나 조언해주고 싶은 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김인경 단원은 20년간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결을 물었다. 이에 대한 이요한 단원의 대답은 ‘오직 철저한 자기 관리뿐이다’라고 말했다.

“오직 음악에 집중해야 전체의 조화를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음악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긴, 말이 필요할까요? 저 같은 선배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고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는 게 있겠죠.”

백 마디 말보다 행동 하나가, 깊이 있는 음악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또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는 과정이 소통이고 조화이며, 이를 통해 앙상블이 이루어진다.

훈훈한 대화를 나누며 음악을 넘어 같은 꿈을 꾸는 선후배로서 더욱 돈독해진 두 사람. 마지막으로 선후배가 사이좋게 스무 살이 된 경기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경기필은 행복을 주는 곳이에요. 연주회를 통해 음악을 즐기는 분들을 보면 힘이 솟고 음악으로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곳이니 까 어려워하지 말고 놀러 오세요.”(이요한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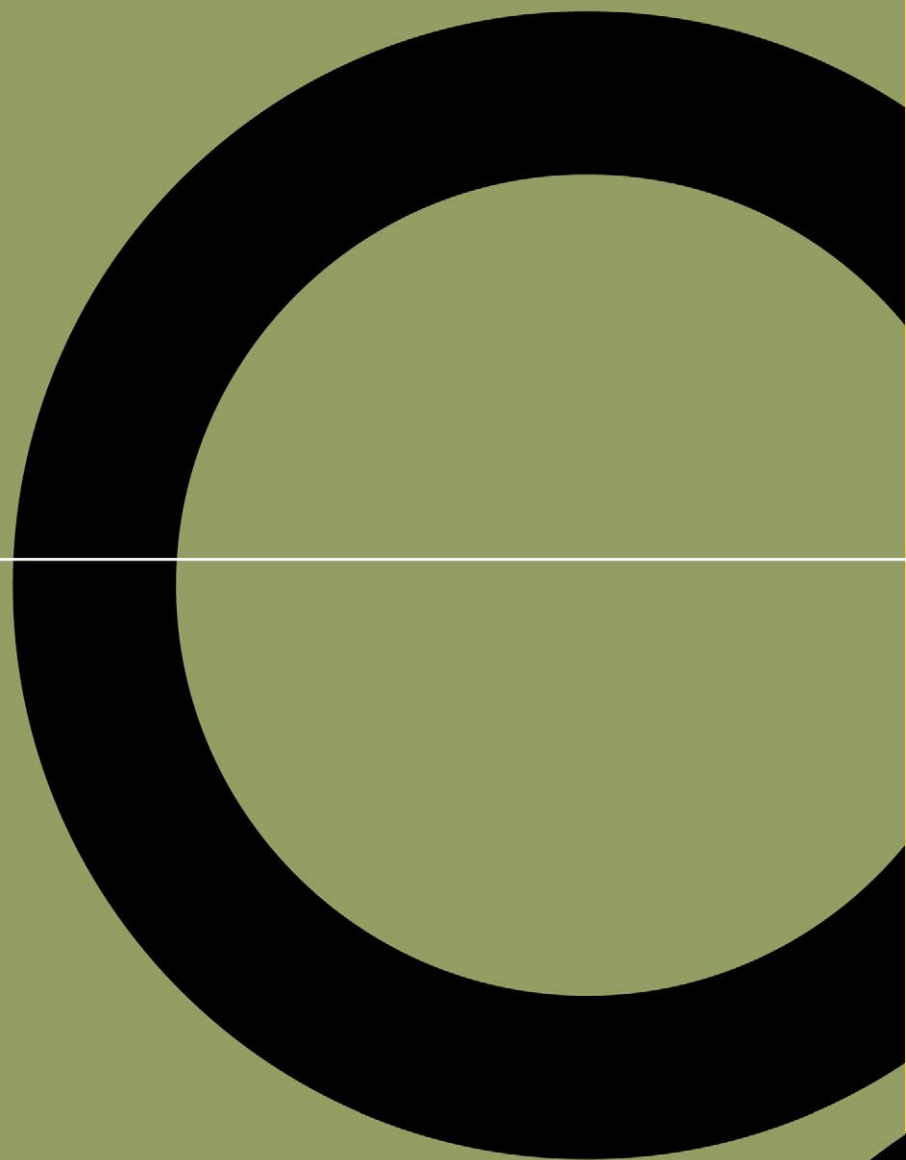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는 곳이 바로 경기필인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김인경 단원)

단원 하나하나의 진심으로 채워지는 오케스트라이기에 경기필이 나아갈 앞으로의 20년이 더욱 기대된다.



S

T



A

G

E

O N T H E
V I E W

18

주목, 이 공연 I

따뜻함을 따라, 햇살을 따라,
어린 악사 모비치가 찾아온 기승 뭉클한 그것
시(詩)음악극 <작은 악사>

주목, 이 공연 II

말러, 그리고 성시연
<성시연의 말러 교향곡 9번>

주목, 이 공연 III

매혹적인 여인들 조 선 가 회.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서 대중을 사로잡다
<윤중강과 함께 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주목, 이 공연 IV

온 몸의 감각을 일깨울
그녀의 가장 빛나는 레퍼토리
조수미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

30

과감하게 골라보기
10, 11월 공연

32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

부활한 윤이상, 축하하는 베토벤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다시 짚고 넘어갈 순간 II

당 타이 손이 연주하고
김대진이 지휘한 쇼팽의 밤
제4회 피스&피아노 페스티벌
<피날레 콘서트>

PREVIEW

따뜻함을 따라, 햇살을 따라, 어린 악사 모비치가 찾아온 가슴 뭉클한 그것

시(詩)음악극 <작은 악사>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에 V 표시 하세요.

- ☐ 나는 차가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다.
- ☐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나 겨울이면 햇빛이 내리쬐는 곳을 찾아다닌다.
- ☐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다.
- ☐ 보고 나면 흐뭇한 미소가 나오는 공연을 가족들과 다함께 보고 싶다.
- ☐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

※ V한 항목이 2개 이상이라면, 11월 18일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 있을
시(詩)음악극 <작은 악사>를 주목해야할 이유가 충분!



‘따뜻함’을 눈으로 본 적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따뜻함’을 가져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있는지.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동화작가 파르하지 라임하키 모비치의 그림책 『작은 악사』를 원작으로 한 시(詩)음악극 <작은 악사>는 ‘따뜻함’을 동경하여 햇살을 가지고 싶어하는 한 어린 악사의 이야기를 다룬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변화한 거리. 누더기 차림의 아이가 피리를 불며 서 있다. 아이의 처연한 연주에도 눈길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아이의 발 앞에 있는 그릇은 동전 한 톨 없이 텅 비었다. 떠돌이 고아로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며 피리연주를 끼니를 이어가는 이 아이는 저무는 해가 아쉽다. 그 따뜻함이 그리고 절실해서 저물어가는 햇살을 따라 걷기 시작한다.

과연 아이는 따뜻한 햇살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작은 악사>의 흥미로운 점은 ‘따뜻함’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촉각적 감각을 시각적 오브제로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바람, 얼음 역시 <작은 악사>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객들을 참여시킨다. 그러나 <작은 악사>의 진짜 묘미는 시각이 아닌 청각이다. 무대에는 연극배우 뿐 아니라 소리배우들이 있는데 이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음향과 음악이 관객들의 감탄을 이끌어 낸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관객들의 청각적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한다.

떠돌이 작은 악사, 모비치의 모험은 현대인들의 욕망 구조와 맞닿아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리라고 갈망하는 것은 인생의 본능이다. 그러나 “결국 손에 넣은 것은 무엇이며, 나는 결국 행복해졌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내리지 못했다면, 모비치가 햇살을 따라 걷고 또 걸었던 결과, 마침내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보자. <작은 악사>는 어린이 관객 뿐 아니라, 보호자로서 큰 기대 없이 어린이 공연장을 함께 들어섰던 어른들에게도 제법 쫄쫄한 ‘따뜻함’을 선물할 것이다.

시(詩)음악극 <작은 악사>

일시 11월 18일(토) 오후 3시/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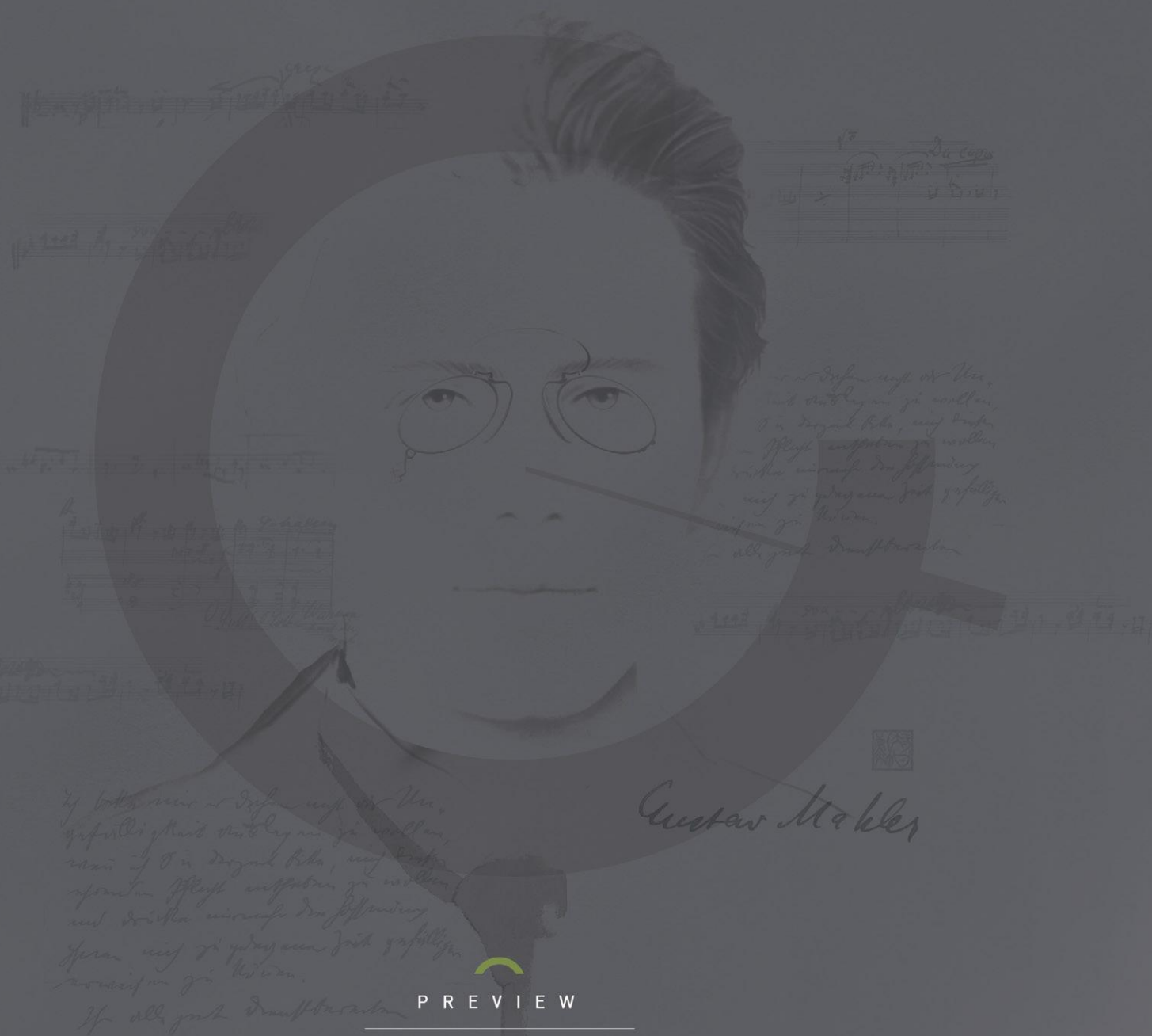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출연 브러쉬씨어터

가격 R석 1만 5천원, S석 1만원

관람연령 만 36개월 이상

문의 031-230-3440~2



PREVIEW

말러, 그리고 성시연 〈성시연의 말러 교향곡 9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성시연 단장이 <2017년 앱솔루트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다.

3월과 6월에 이어 오는 10월 말에 선보이는 앱솔루트 시리즈 그 세 번째 무대 곡은
다름 아닌 말러 <교향곡 9번>. 음악 그 자체의 가치를 마음껏 연주하고 있는 작품들로
엄선하고 있는 성시연의 앱솔루트 시리즈가 마침내 말러를 선택했다.

앱솔루트 시리즈를 위해 그간 브루크너 7번, 베토벤 교향곡 9번 등 주로 작곡가들의 후기 작품을
선택했던 성시연의 선택에는 다양한 의미와 함께 단단한 자신감이 느껴진다.





성시연의 애플루트 시리즈 III은 말러 <교향곡 9번>에 이어 슈만 <첼로 협주곡>을 연주한다. 이와 함께 기대해도 좋을 포인트는 독일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농의 최초 내한이다. 2005년 독일 음악협회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호르농은 마리스 안손스, 다니엘 하딩, 베르나드 하이팅크, 만프레드 호넥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협연했다. 23살의 나이에 바바리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으로 임명되며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막시밀리안 호르농이 경기필과 함께 연주할 슈만의 <첼로 협주곡>은 가장 뛰어난 첼로 협주곡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경기필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으로 말러 <교향곡 9번>과 함께 관객들을 만족시킬 경기필의 비장의 무기인 셈. 이번 애플루트 시리즈는 그야말로 absolute한 무대가 될 듯하다.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농

구스타프 말러(1860~1911)는 칼리슈테라는 보헤미아 마을에서 오스트리아인 여관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대인 혈통이었던 말러는 어린 시절부터 인종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독일 토착민들에게도, 오스트리아인들에게도 속할 수 없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말러는 자신이 유대인에게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철저한 이방인임을 깨닫는다. 디아스포라(Diaspora), 즉 고향을 잃고 흩어진 유대인 정서는 전 생애에 걸친 그의 외로움의 근거였다.

뿐만 아니라 말러의 일생은 늘 죽음과 가까이에 있었다. 유년시절 11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들이 질병과 죽음에 시달리는 것을 눈앞에서 보아야 했고, 자신 역시 어머니의 약한 심장을 물려받아 죽음이 유예된 삶을 살았다. 이러한 말러의 정서는 그의 음악에 나타나는 긴장, 불안, 회의주의, 강박, 끝없는 추구 등과 연결된다.

죽음과 무관할 수 없었던 그가, 죽음을 무척이나 두려워했음은 교향곡 9번의 탄생에 얹힌 비화에서도 알 수 있다. 9번째 교향곡이 그 작곡자의 마지막 교향곡이 된다는 미신 같은 이야기가 베토벤과 브루크너의 삶에서 이미 증명이 된 만큼 그에게도 적잖은 공포를 가져다준 것. 말러는 아홉 번째로 작곡한 교향곡을 <대지의 노래>라고 부르며 '교향곡 9번'이라는 제목이 붙여지길 꺼려했다. 또 실제 <교향곡 9번>을 작곡했을 때, 그는 이 작품이 실제로는 열 번째 교향곡이므로 죽음이 자신을 지나쳤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향곡 9번>은 결국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고 <교향곡 10번>은 미완으로 남았다.

총 4악장으로 구성된 말러 <교향곡 9번>은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이나 조성체계를 벗어난 혁신적인 기법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작품이라 평가된다. 말러는 이 곡을 통해 독특한 음향의 실험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의 1악장에 이어 낮설고 거친 음향의 2악장, 흡사 악마의 비명과도 같은 그로테스크한 3악장이 연주되고, 마침내 겸허하고 숭고한 분위기의 4악장으로 마무리되는 <교향곡 9번>은 신비로운 여운을 남기며 퇴장한다.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농익은 연주와 말러 스페셜리스트 성시연의 지휘가 만들어낼 말러 <교향곡 9번>은 클래식 마니아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다. 단지 잊고 살아갈 뿐, 누구에게나 드리우는 죽음의 그림자를 잠시나마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숭고한 선율에 빠져보자.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음악이라는 예술의 접점을 그 어떤 순간보다 가슴 깊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다시금 말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성시연의 애플루트 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러 9번

일시 10월 27일(금) ~ 28일(토) 오후 8시

장소 (금)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토)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출연 성시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가격 (금)R석 4만원, S석 2만 5천원

A석 1만 5천원

(토)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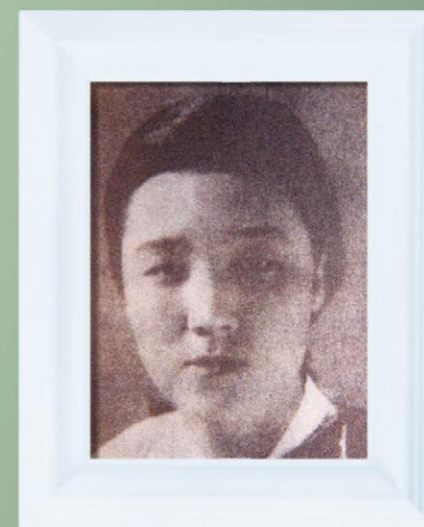
문의 031-230-3295

PREVIEW

매혹적인 여인들 조.선.가.회. 격동의 역사 한가운데서 대중을 사로잡다

<윤중강과 함께 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1930년대를 아는가. 흔히 일제강점기라 표현하는 그 슬픔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고 어두운 자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침체되기만 했을 것 같은 그 시절에도 음악은 꽃을 피웠다.
그것도 아주 매혹적이며 간드러지게.
여기, 그 가녀리고도 강인한 꽃을 주목한 공연이 있다.



비운의 역사와 함께 암울한 민족의 시기에도 문화와 예술은 오히려 그 존재감을 활발히 드러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1930년대의 예술가들은 서양음악을 맛보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독특한 문화 패러다임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비록 억압과 탄압의 식민지 설움이 가슴에 얹혀 있지만, 그것을 잠시 잊게 만드는 게

음악이었던 것. 그런데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바로 이 1930년대 음악에 주목하고 있다.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와 영화 '해어화'가 30년대 문화와 음악을 소재로 다뤘다.

10월 28일 경기도국악당에서 펼쳐지는 <윤중강과 함께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이하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도 그 처연했지만 생동감이 넘쳤던 1930년대의 현장을 담아낸다.

특히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가 주목하는 것은 독보적인 활동을 펼쳤던 여성 솔로가수들,

즉 조선가희(朝鮮歌姬) 5인이다.



이난영



박향림

목포의 눈물

이난영(1916~1965)

목포공립보통학교를 다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중도 자퇴했다. 제주도에서 어머니와 생활하던 중 주인집 아이를 돌보며 흥얼거린 노래를 듣고, 극단을 경영하던 집주인의 추천을 받아 순회공연 중이던 삼천영을 알아본 작사가의 추천으로 오케레코드의 전속 가수로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1935년 문일석 가사에 손목인이 곡을 붙인 '목포의 눈물'로 가왕(歌王)이라 불릴 정도의 큰 인기를 얻게 된다. 1936년에는 오카 란코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대중가요 작곡가 겸 가수로 활동하던 김해송과 혼인하였다.

독특한 목소리 탁월한 기교

박향림(1921~1946)

원산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박향림은 오케레코드의 연주단을 찾아가 노래를 불렀으나, 사장 이철의 반대로 발탁되지 못했다는 후문. 결국 상경하여 오케레코드의 경쟁사인 태평레코드를 찾아가 가수로 데뷔한다. 이후 컬럼비아레코드에 영입되어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는데, 대표적인 노래로 '오빠는 풍각쟁이', 김해송과의 듀엣송 '전화일기'가 있다. 동시대 여가수 중 가장 도시적이면서도 발랄한 분위기의 노래를 불렀으

며, 아무지고 정확한 가창으로 호평을 받았다. 많은 인기를 얻은 박향림은 초반에 자신을 거절했던 오케레코드에 스카우트되어 히트곡을 계속 발표한다. 그러나 1946년 출산 직후 무대에 올랐다가 산후병이 발병하여 24세의 아까운 나이에 사망한다.

소설가 이효석의 연인

왕수복(1917~2003)

편모술하에서 자란 왕수복은 명륜여자공립보통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평양기생학교에 입학한다. 기생이 되어 특히 노래에 재능을 보이던 그녀는 10대 중반에 컬럼비아레코드에서 기생 출신의 최초의 대중가요 가수로 데뷔한다. 이듬해 데뷔한 기생 출신의 신민요 가수 선우일선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기스타로 성장했으며 1935년 잡지 『삼천리』가 실시한 인기투표에서는 선우일선, 이난영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그녀는 정상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1936년 일본으로 건너가 서양음악을 공부하여 메조소프라노가수로 귀환한다. 이후 조선민요를 성악 창법으로 불러 화제를 모은다. 소설가 이효석과 경제학자 김광진의 연인으로로도 유명한 왕수복은 이효석의 임종을 지키고, 훗날 시인 노천명의 연인이었던 김광진과 결혼하여 함께 월북한다.



왕수복

하늘나라의 옥통소 소리

선우일선(1918~1990)

홀어머니와 어렵게 자라던 선우일선은 평양기생학교에 입학한 후, 소리를 잘 하는 기생으로 유명해진다. 1933년 포리돌레코드 문예부장 왕평에게 발탁되며 '꽃을 잡고'라는 곡으로 데뷔한다. 주로 신민요를 불렀던 선우일선은 왕수복과 함께 평양기생학교 출신 가수로 쌍벽을 이루며 인기를 얻는다. 신민요의 고전으로 불리는 '조선팔경가'를 비롯하여 '압록강 뱃노래', '바람이 님네'와 같은 히트곡을 발표한다. 작사가 및 영화감독으로 활동했던 이부풍은 선우일선의 소리를 "하늘나라에서 옥통소 소리를 듣는 듯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라고 회고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평양에 머물며 말년까지 민요 연구에 헌신한 것으로 알려진다.

1939년 음반 십만 장 판매 폭발적 인기

이화자(1918~1950)

인천 출생. 작곡가 김용환에게 발탁되어 가수로 데뷔한다. 당시 인기 절정이던 왕수복, 선우일선을 능가하는 민요가수로 주목받았다. 1938년 오케레코드사에서 거액을 받고 전속가수가 되어 김해송 작곡인 '화류춘몽', 박시춘 작곡의 '목단강 편지' 등으로 큰 인기를 얻는다. 특히 '어머님 전상서'는 십만 장 판매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화자를 민요의 여왕 자리에



선우일선



이화자

앉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지방순회공연단체의 일원으로 객지생활을 하다가 일가친척 없이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다섯 명의 조선가희들은 코믹송에서 재즈송까지 두루 섭렵하며 전통과 현대의 가요 역할을 했다. 그들은 서로 치열한 라이벌이자 때로는 동반자였다.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는 국악평론가이자 연출가 윤중강을 섭외해 그 시절의 영상과 복각음반, 라이브 재현무대를 선보이며 그 시절 삶과 음악을 훑어 내린다. KBS 클래식 FM <흥겨운 미당>의 진행자이자 '국악평론가 1호' 윤중강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1930년대 음악과 역사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줄 예정이다.

새 시대를 갈망하며 2017년의 문을 열어젖히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 1930년대의 음악을 소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기획자는 '소통과 공감'을 말한다.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억압과 불통의 시절, 오히려 문화와 예술은 기를 쓰고 존재감을 표현했다. 그것이 반항이든, 대중을 향한 위안이든. 아픔의 역사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1930년대의 처절하면서도 발랄한 이 노래들은 또 다른 문화 부흥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80여 년 전, 이 땅의 대중들을 사로잡았던 그녀들의 아찔한 노래에 눈과 귀를 맡겨보자.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일시 10월 28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출연 윤중강, 이은혜, 김민지, 미미, 노경진

가격 전석 3만원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문의 1544-2344, 031-289-6424

조수미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

일시 11월 3일(금)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12만 천원,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5만 5천원

출연 조수미, 안드레이 비나첸코

문의 031-230-3440~2

P R E V I E W

온 몸의 감각을 일깨울
그녀의 가장 빛나는 레퍼토리

조수미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

천상의 목소리, 세계적인 프리마돈나, 전설을 만들어가는 소프라노...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그녀의 이름만으로 자기 자신을 확고히 증명하는 조수미가 데뷔 30년을 맞았다. 화려한 무대와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벗 삼아 세계무대를 누볐던 조수미가 수원을 찾는다. 그런 그녀의 이번 무대에 함께하는 건

단지 피아노 한 대. 그 어떤 여과도 없이 울려 퍼질 그녀의 목소리에 팬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렌다. 11월,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찾는 조수미가

「예술과 만남」에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내왔다.

©young ho kang

2016-17시즌으로 조수미가 데뷔 30주년을 맞았다. 음악을 보는 눈, 후배를 바라보는 마음, 인생에 대한 태도가 여러 차례 변화하고 또 성장했을 터. 각종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 항상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왔던 조수미는 '데뷔 30주년'에 대한 소감을 말하며 과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를 강조한다.

“돌이켜보면 마냥 음악이 좋아 노래하던 어린 시절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꿈을 높이 가지고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조수미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성악 꿈나무들에게도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음악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예술가는 청중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본인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은 물론이고,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객과 팬들의 성원이 절실합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생각을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목소리 또는 악기의 힘을 빌려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음악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이 밑거름을 바로 ‘지금’ 많이 만들어 두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간 세계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었고,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드 등 주로 규모가 큰 무대에 올랐던 조수미. 그런데 이번 경기도문화의전당 콘서트에는 피아노 한 대만이 그녀와 함께한다. 조수미는 먼저 성악가에게 ‘반주’가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다.

“성악가에게 ‘어떤 반주에 노래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연 기획자에게는 관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공연을 제공(present)할 것인지가 중요하죠. 특히 기획자 입장에서는 풍성한 무대를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성악가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노래를 한다는 것은, 성악적 표현과 악기의 표현의 앙상블이 필요시 되는 곡을 부를 때입니다. 즉, 작곡자의 의도가 풍성한 반주를 필요로 하고, 공연 기획자가 무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화를 이룰 때 성악가는 큰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곡을 만드는 작곡가 의도와 무대를 만드는 기획자 의도를 강조하는 조수미. 그렇다면 노래를 부르는 이의 온전한 의도는 어떨까?

“진정한 목소리의 매력은 피아노와 성악가, 두 사람이 단촐히 만들어내는 무대에서 나타납니다. 관객들이 숨김없는 목소리의 진정성을 전달받게 되는 순간이죠. 세계무대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저로서는 관객들에게 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단 한 대의 피아노 반주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콘서트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이 묻어나온다. 관객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조수미의 무대보다 좀 더 그녀의 목소리를 가까이, 섬세하게 듣게 될 것 같다. 이제 이 특별한 무대를 위해 그녀가 준비한 곡들이 궁금해진다.

“이번 콘서트는 피아노와 목소리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곡들이지만 제가 가장 즐겨 부르는 예술가의 곡들과 아리아로 구성했습니다. 1부에서는 오페라 <바야제트> 중 ‘나는 멀리받는 아내라오’(Sposa, Son Disprezzata) from opera <Bajazet>를 비롯하여 에바 델라쿠아(Eva Dell'Acqua)의 명곡, 목가(Villanelle), 그리고 많은 관객들께서 좋아하시는 ‘반짝반짝 작은별’로 유명한 모차르트 바리에이션으로 구성했습니다. 2부에서는 관객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가곡들과 오페라 <호프만의 노래> 중 ‘인형의 노래’ (Les oiseaux dans la charmille(Doll Song) from opera <Les Contes d'Hoffmann>)를 선곡했어요.”

이렇게 정성 들어 준비한 무대를 찾아와줄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콘서트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수가 부를 곡들에 대해 사전에 조금 공부한다면 좀 더 곡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려 어떤 드라마를 가진, 어떤 가사의 곡인지를 알고 보신다면 가수가 왜 저런 표정을 짓는 지까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 그 날이 여러분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에게 맡기시고요! (웃음)”

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성악곡,
소프라노 조수미가 직접 추천합니다!

성악곡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비교적 유명하면서 드라마틱한 곡들을 추천하고 싶네요. 푸치니(Puccini)의 오페라 <토스카(Tosca)>의 3막에서 주인공 화가 마리오 카바라도시(Mario Cavaradossi)가 사형을 앞두고 비통하게 부르는 노래, “E lucevan le stelle”(별은 빛나건만)입니다. 테너가 부는 목소리가 표현하는 비통함의 극치라고 할까요? 소프라노 곡으로는 비극의 여주인공 오페라 <리골레토(Rigoletto)>의 질다(Gilda)가 부르는 “Caro nome”(그리운 그 이름)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람둥이 만토바 공작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련한 질다의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곡입니다. 이 가을, 여러분의 마음을 아련하게 채우기에 충분할 겁니다!



콘서트

2017 Theatre 이문세

일시 10월 13일(금) 오후 8시
10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석 14만 3천원, R석 13만 2천원
S석 11만원, 붉은노을석 9만 9천원
파랑새석 8만 8천원

출연 이문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공연을 처음 본다면, 꼭 한번. 공연을 자주 본다면, 최소 한번. 최선을 다해 최선을 만 든다는 자부심으로 콘서트에 임하는 이문 세가 수천 관객을 만났다.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 다채로운 춤과 영상, 관객들의 박수가 어우러져 즐거움을 선사한다.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VI

김영지 바이올린 독주회

일시 10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무료(사전 관람 신청자에 한함)
출연 2017 경기영아티스트 김영지(Vn)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2017 경기영아티스트 김영지의 바이올린 독주회가 열린다. 차세대 클래식 유망주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인 경기영아티스트 시리즈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영지는 저스트 비바체 페스티벌 콩쿠르 1위, 중앙음악콩쿠르 2위, KBS 한전음악콩쿠르 1위의 수상 경력을 갖춘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가녀린 외모와 달리 풍성한 드라마가 담긴 연주로 존재감과 잠재력을 드러낼 예정이다.



조수미 콘서트

라프라마돈나

일시 11월 3일(금)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가격 VIP 12만 천원,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5만 5천원
출연 조수미, 안드레이 비니첸코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소프라노 조수미가 피아노 독창회로 경기도 문화의전당을 찾는다. 오직 피아노 한 대의 선율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돕는다. 조수미의 작은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바로크로 시작해서 독일, 스페인, 미국, 한국 등 다양한 언어와 스타일의 곡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비니첸코가 함께한다.



2017 한영애 콘서트

바람

일시 11월 3일(금) 오후 8시
11월 4일(토) 오후 6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5만원, S석 4만원
출연 한영애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포크, 블루스, 락 등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음악 및 라디오MC 등 문화계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영애는 <여울목>이 수록된 솔로 1집으로 데뷔해 <누구없소>, <조울> 등 명반 행보를 걸으며 디바로 우뚝 섰다. 파격적인 앨범과 문화계의 다양한 활동으로 바람을 몰아온 한영애가 색다른 에너지로 무대와 관객을 뜨겁게 할 예정이다.



경기도립극단

윤이상; 상처입은 용

일시 10월 21일(토)~10월 29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 7시
(일) 오후 3시
장소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출연 경기도립극단
관람연령 중학생 이상

지난 7월 호평을 받으며 막을 내린 경기도립극단의 <윤이상; 상처입은 용>이 대학로 무대에 오른다. 양정웅 예술감독, 이대웅 연출과 이오진 작가가 의기투합하여 완성한 이 작품은, 선생의 삶을 통해 아픈 현대사를 되짚어보고, 예술을 향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고찰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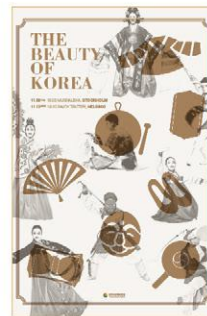


문화가 있는 날

I Love A Piano

일시 10월 25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4만원, S석 3만원
출연 이소정, 조윤성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매력적인 피아노 선율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 재즈피아니스트 조윤성과 뮤지컬 배우 이소정이 만나 제대로 된 재즈 무대를 선사한다. 라틴의 정열과 미국 재즈의 섬세함을 겸비했다고 평가받는 조윤성과 전설의 재즈피아니스트 아마드 자말이 인정한 브로드웨이 스타 이소정. 가을 냄새 물씬 나는 재즈 뮤지컬 곡들이 준비되어 있다.



경기도립무용단

2017 북유럽 초청공연

일시 11월 9일(목), 11월 13일(월)
장소 (목) 스웨덴 스톡홀름, 뮤지칼리스크
(월) 핀란드 헬싱키, 사보이 씨어터
가격 전석 초대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경기도립무용단이 한국무용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무용단체로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북유럽 무대로 향한다. 주스웨덴대사관과 주핀란드대사관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공연에서 부채춤과 강강술래, 농악무 등 세계무대에서 호응이 컸던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한국무용의 세계화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경기도립무용단의 활약이 기대된다.



연극

취미의 방

일시 11월 11일(토) 오후 3시, 6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3만 5천원, S석 2만 5천원
출연 김진수, 최진석, 김늘메, 주민진, 백은혜
관람연령 만 10세 이상

아무도 모르게 사수하고 싶은 나만의 취미가 있다면?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 비밀 발설 절대 금지, 사생활 철저히 보장, 여자 출입 금지! 수상한 네 남자가 모여 은밀한 '취미의 방'을 만들었다. 오직 취미 생활만을 즐기기 위해 만든 스트레스 제한 구역 '취미의 방'에 살인 사건 용의자가 있다는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네 남자의 기발한 알리바이와 긴장감 넘치는 추리가 시작된다.



경기필하모닉 애플루트 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러 9번

일시 10월 27일(금)~10월 28일(토) 오후 8시
장소 (금)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
(토)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격 (금)R석 4만원, S석 2만 5천원
A석 1만 5천원, (토)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출연 성시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2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말러 스페셜리스트' 성시연이 드디어 교향곡 9번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독일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농이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협연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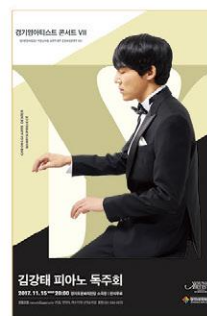


경기도국악당 기획공연

윤중강과 함께하는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일시 10월 28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가격 전석 3만원
출연 윤중강, 이은혜, 김민지, 미미, 노경진
관람연령 초등학교 이상

이난영, 박항림, 왕수복, 선우일선, 이화자. 이 낯선 이름의 정체는? 바로 1930년대를 주름잡았던 여가수들이다. 트로트에서 아리랑까지, 코믹송에서 재즈송까지, 전통과 현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조선가곡(朝鮮歌姬)들의 무대에, 국악평론가 윤중강의 해설이 더해져 그때 그 시절로 안내한다.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VII

김강태 피아노 독주회

일시 11월 15일(수) 오후 8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전석 무료(사전 관람 신청자에 한함)
출연 2017 경기영아티스트 김강태(Pf)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2017 경기영아티스트 김강태의 피아노 독주회가 열린다. 경기영아티스트 시리즈의 마지막 주자인 김강태는 2013년 한국 리스트 콩쿠르 1위를 비롯해, 부산 음악 콩쿠르 1위, 베이징 국제음악 페스티벌&아카데미 협주곡 콩쿠르 1위를 거머쥐며 마침내 경기영아티스트의 자리까지 꿰어찼다. 11월, 대범한 신예 피아니스트의 무대에 주목해보자.



가족극

작은 악사

일시 11월 18일(토) 오후 3시, 6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1만 5천원, S석 1만원
출연 브리쉬씨어터
관람연령 만 36개월 이상

겨울로 접어드는 11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햇살 같은 시(詩)음악극 한 편이 준비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가 파르하지 라임 하끼 모비치의 그림책 '작은 악사'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이 연극은 외로운 아이 모비치의 행복 찾기 여정을 담고 있어 어린이 관객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REVIEW

부활한 윤이상, 축하하는 베토벤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한국이 낳은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지난 9월 9일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갖고,
동서양을 넘나드는 흥미로운 레퍼토리를 구성해 시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특별한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했다.
마치 짙은 해무에 둘러싸인 망망대해 위에서의 90여 분이였다.

글 김은중 월간 <음악저널> 편집장

경기필이 준비한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콘서트의 첫 곡은 윤이상이 1966년 그의 나이 마흔 후반에 작곡한 '대편성 관현악'을 위한 '예악'이었다. 1966년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초연으로 윤이상에 대가의 타이틀을 안겨준 이 작품은 1972년 7월 13일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 원경수)에 의해 국내 초연되었다.

언제나처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의 예술단장 성시연 상임지휘자는 당당하게 걸어 나와 포디움 앞에 섰다. 이 황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보라. 망망대해, 해무에 둘러싸인 듯 섬뜩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분위기를 몰아간다. 이 극적인 드라마에서 명확한 실체는 불규칙 속에서 규칙을 만들어내는 타악기뿐이다. 이 곡에는 극적인 반전도, 기승전결도 없다. 부분이 전체 같고, 전체가 부분 같다. 경기필은 약 12분에 걸쳐 이 '예악'을 해무와도 같은 긴장감으로, 한지에 번져나가는 먹물처럼 그려나가며 한 폭의 수묵화로 완성시키고 있었다.

경기필이 이날 연주에서 준비한 윤이상의 또 다른 작품, '무악(1978)'<대편성 오케스트라를 위한 무용적 판타지>는 예술단장 성시연 지휘자의 탁월한 해석과 함께 경기필 단원 개개인의 한층 강화된 역량을 펼쳐 보이며 윤이상의 예술세계를 객석에 주시시켰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비틀거리며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는 음형과 리듬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다. 사이렌처럼 반복하며 고음으로 상승하는 현악기 속에 타악기와 관악기가 아우성친다. 목관악기가 마치 수천 개의 봉우리에 부딪히며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지휘자는 마치 목적지가 보이지 않음에도 목적하는 바를 은유적으로 암시하며 단서를 찾아가도록 힌트를 제공하는 탐정 같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미스터리한 사건의 주인공인 듯 각자의 플롯을 갖고 있다.

경기필의 이날 연주가 탁월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면 이 암시와 힌트, 미스터리한 플롯이 한 편의 짜임새 있는 스토리로 마치 거장의 명작 추리소설을 읽은 듯 흥미진진하다는 점에 근거가 있다. 성시연은 윤이상이 작곡한 두 개의 '거대한 단편' 속에 리게티의 '론타노(Lontano)'를 위치시킨다. 마치 베토벤의 두 거대 피아노 소나타 21번(다장조, 발트슈타인)과 23번(바단조, 열정) 사이에 자리 잡은 22번(바장조) 같기도 하고, 교향곡 5번(다단조, 운명)과 7번(가장조) 사이에 위치한 6번(바장조, 전원) 같이 조화롭다. 그래, 이게 예술 감독의 역할 아니던가! 동양인으로 태어나 조국에서 버림받고 타국에서 활동하면서도 당대의 음악 어법과 기류에 쉬 편승하지 않고 고국의 향수를 늘 가슴에 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창조해내던 윤이상. 그가 누군가, '처염상정(處染常淨,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운 흙탕물이 묻지 않는 연꽃을 상징)'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어느 곳에 있어도 자신의 정체성과 음악적 소명을 지켜낸 윤이상 아닌가.

창단 20주년을 맞이하는 경기필은 4년 차 예술단장 성시연과 함께 '처염상정'의 자세로 돌진하고 있다. 지난해 선보인 멘델스존 바그너 탁투스, 브람스와 브루크너, 말러로 대표되는 애플루트 시리즈와 함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윤이상을 그 본고장 통영, 자신들의 홈그라운드 수원, 서울과 멀리 독일에까지 전파하는 성시연과 경기필의 행보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 힘찬 발걸음을 베토벤(이날 연주의 후반부는 이례적 편성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이 협연하는 베토벤 협주곡이 메인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 또한 예술 감독의 탁월한 선택이다)도 축하하고 있었다.



REVIEW

당 타이 손이 연주하고 김대진이 지휘한 쇼팽의 밤

제4회 피스&피아노 페스티벌 <피날레 콘서트>

개성 강한 '쇼팽 스페셜리스트' 당 타이 손과 피아니스트를 가장 자유롭게 해줄 지휘자 김대진이 <제4회 피스&피아노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이날 당 타이 손, 김대진, 경기필은 말 그대로 '아시안 하모니'의 진수를 보여줬고, 관객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뜨겁게 화답했다.

글 김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제4회 피스&피아노 페스티벌 <피날레 콘서트>에서 협연하는 당 타이 손

피아노만을 위한 음악 축제 <피스&피아노 페스티벌>. 어느덧 네 번째 축전이었던 올해 주제는 '아시안 하모니'였다.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을 비롯하여 아시아 연주자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 아시안 피아니스트로서는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아시아 파워를 과시했던 당 타이 손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의 두 번째 협주곡을 연주, 대미를 장식했다. 누구보다 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협연자와의 우정이 깊은 김대진이 지휘봉을 잡은 것도 성대한 마무리에 걸맞은 콤비네이션. 연신 고개를 돌려 당 타이 손을 바라보고 교감을 나누며 음악을 진행하는 김대진의 모습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아무래도 관현악을 다루는 데 있어 피아노만큼 능숙하지 않았던 쇼팽이, 그것도 청년 시절에 작곡한 작품이라 오케스트레이션의 완성도가 높지 않았지만, 두 대가의 이심전심이 통하니 이토록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내지 않았겠는가?

낭만적인 정서가 가득하면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서정적인 선율로 가득한 라르게토 악장이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다. 지나친 애상에 빠지지 않고 느긋한 템포로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명경지수를 보는 듯 영롱한 빛깔의 피아니즘만으로도 자기만의 경지에 도달한 연주자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파격과 변주를 섞은 개성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차분함이 기조였고, 음악이 아름답게 전개되면서도 정지하는 듯, 종국에 고요한 비경을 보는 듯 했다. 바로 이것이 동양적인 중용의 정서가 가미된 서양음악이 아니었나 싶다. 최근 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동양계 연주자들을 접하다 보면 무엇이 다른 동양적인 정서를 담아내고 있으며 이것이 작품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한다. 첫 악장의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과 마지막 악장의 격조 있으면서 열기를 불어 넣은 연주는 대가의 숨씨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앙코르로 들려준 야상곡 역시 그야말로 명불허전.

앞서 전반부에는 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선곡이었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라벨의 왼손을 위한 협주곡. 모노톤의 색감과 진폭이 적은 울림 그리고 현란하지 않은 기교로 이 난곡을 전개했고, 보다 절제된 정서적 표현을 하였다. 이것이 강력한 경기필하모닉의 서포트로 화려하지 않으나 대단히 개성적인 연주로 이끌었다. 이날 연주회의 차분한 시작은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보로 열었다. 그간 정하나 악장이 이끄는 경기필하모닉의 현악 색선은 국내 최정상급의 기량을 자랑했는데, 정교한 합주력으로 서늘하고 음울한 정서가 담긴 북극의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재현하여 그것이 허명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였다.



IN

A R T &
P E O P L E

INTERVIEW



38

GGAC가 만난 사람 I
한영애의 바람은 계속된다
가수 한영애

GGAC가 만난 사람 II
'다른 듯 같은 듯'
미래를 꿈꾸는 우리
지휘 이규성, 거문고 공영은, 바이올린 김영지

46

예술가의 방
관객 마음을 품어 소통으로 꽃핀
경기도립무용단 <관>
스테이지에 선 단원들

50

타인의 취향
책부터 공연까지! 욕심쟁이 문화꾼
경기도문화의전당 <모니터-G> 활동가
안준희 씨



INTERVIEW

한영애의 바람은 계속된다

가수 한영애

단연컨대 그녀만큼 목소리의 지문이 확실한 아티스트는 드물다.

압도하되 과시하지 않고, 거침없되 품위를 지킨다. 점성 높은 목소리로 어둠이 내려앉은 세상에
'누구 없소'라 물으며 정신을 일깨웠고, 온도 낮은 목소리로 소식 한 번 달라며 '안부'를 건네기도 했다.

늘 삶의 희로애락을 '조율'하면서도 중국에는 '너의 편'이라 위로를 건네는 그녀.

'코뿔소'처럼 곳곳이 자신의 길을 내달려온, 가수 한영애다.

이 가을 가수 한영애가 9월 9일 여수를 시작으로 울산, **한영애** 대전, 서울 등을 거쳐 11월 3일과 4일 경기도 **풍이 분다** 문화의전당 소극장에서도 콘서트를 연다. 이번 투어 타이틀은 ‘바람’. 바람의 자유로움을 담은 그녀 목소리가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한줄기 ‘바람^{wind}’이 되어 희망을 이야기하고픈 ‘바람^{wish}’을 담았다. 이번 공연에서 그녀는 1980~90년대 큰 사랑을 받았던 대표곡을 비롯해 15년 만에 발매한 6집 앨범 <샤키포>에 수록된 ‘샤키포’, ‘바람’, ‘너의 편까지, 한 곡 한 곡 집심의 순도를 높여 노래하면서 관객과 더욱 농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Q. 지난 6월, 경기도문화의전당 ‘브런치 콘서트 with 김종진’에서 ‘여름 그리고 한영애’라는 주제로 관객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오전 11시 소극장에서 열린 공연이다 보니 관객 대부분이 낮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시는 주부님들이었어요. 노래도 중요하겠지만 그날 오신 분들과 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 그분들 역시 그러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들의 이야기로 교감하고자 했습니다.

Q. 그리고 11월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소극장 콘서트를 펼쳐게 됐는데요.

6집 <샤키포>와 함께 이전에 부르지 못한 노래들을 나누고 싶어 9월부터 전국 소극장 투어를 시작했어요.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대극장에서만 공연을 해왔고 소극장은 ‘브런치 콘서트’때가 처음이었는데, 잘 갖춰져 있어 꽤나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번 투어와 관련해 공연장 헌팅을 할 때도 경기도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어때?’라며 슬쩍 추천 했습니다.

Q. 공연 타이틀이 ‘바람’인데. 공기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바람^{wind}’도 있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에서의 ‘바람^{wish}’도 있잖아요.

2014년 11월말에 6집 앨범이 나왔는데, 그때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어요. 앨범 홍보를 하기에는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서 나누지 못한 노래가 많았는데, 이제야 그것을 조금씩 풀어보려 해요.

특히나 <샤키포> 앨범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샤키포’부터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믿음이 담긴, 제가 만든 주문이죠. 공연에서도 이러한 희망의 기운이 관객의 가슴을 스치었으면 하는 바람^{wish}에서 <바람>이라 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앨범에 ‘바람’이라는 서정적인 곡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신 것도 있고요.

Q. 그렇다면 2017년 현재, 가수 한영애의 바람^{wish}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고, 편안한 곳에서, 모두가, 더불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저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Q. 관객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즐겨줬으면 하나요?
원 없이, 한 없이 공연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공연이라는 게 반드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감상을 하고, 어떤 몸짓을 건네고, 어떤 빛나는 소리로 화답하는지 또한 공연의 일부죠. 오셔서 저와 함께 공연을 해주시면 저 역시 여러분이 전하는 객석 공연을 감사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가 한영애는 1976년 그룹 ‘해바라기’ 멤버로 데뷔
물고 왔던 후 ‘신촌블루스’의 보컬을 거쳐 1986년 솔로
바람 1집 <여울목>을 발매한다. 1988년 ‘누구 없소’, ‘코뿔소’ 등이 수록된 2집 <바라본다>는 한 일간지에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19위로 선정할 만큼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후로도 ‘조울’, ‘불어오라 바람아’, ‘샤키포’등은 자신만의 표현력과 해석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흔든다. 뿐만 아니라 포크, 블루스, 록, 레게,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단단한 성벽과 흔들림 없는 세계를 구축했다.

Q. 1976년 대중음악계에 들어왔으니 어느덧 40년 넘게 대중에게 목소리를 들려준 셈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롯이 음악만 40년을 한 것은 아니고, 7년여의 극단생활 시절 음악과 관계없이 보낸 시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1976년부터 노래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40’이란 숫자를 되짚어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죠. 양이 많은 적든, 질이 좋은 나쁜든 간에 40년 동안 무대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행복이니까요. 성공한 거라고 봐요(웃음).

Q.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도 초를 다투며 변화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대 위에서 나의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중요한 것 같아요.

Q. ‘소리의 마녀’, ‘카리스마 여제’, ‘블루스의 대모’, ‘대중음악계 거장’ 등 한영애 씨를 뒷받침하는 수식어도 참 많은데요. ‘소리의 마녀’ 좋아해요. 또, 라디오 프로그램할 때 청취자가



붙여준 ‘북극여우’도 좋고요. 의미는 잘 몰라요. 나름 스태프들이 해석해보고자 했는데, 별명을 붙여준 청취자가 그러더군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마세요. 한영애씨는 그냥 북극여우예요”라고. 설명 없이도 좋습니다.

Q. 가수뿐만 아니라 연극 및 뮤지컬 배우로, 라디오 DJ로도 활동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무대나 순간을 꼽아주신다면.

솔로 데뷔를 하고 첫 공연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했어요.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죠. 그런데 공연 도중 중간쯤 앉아 있던 관객 두세 분이 천장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젤라틴에 불이 붙어 똑똑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노래를 계속해야 하나, 멈춰야 하나 판단해야 했어요. 그리고 옆을 봤는데 스태프가 움직이더군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양도 수습 가능하겠다고 싶었고... 그래서 더 몰입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순간부터 관객들도 서로 손을 맞잡고 공연에 더 집중해 주시더라고요. 한 마디로 저도, 관객도, 스태프도 서로가 서로를 믿었던 순간이었죠.

이와 함께 <한영애의 문화 한 페이지>라고 7년간 꾸려왔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폐지될 때 그걸 막고자 힘써준 문화계 인사나 1인 시위에 나선 청취자들도 기억에 남고요.

바람은 인터뷰 도중 한 여성이 한영애를 향해 걸어왔
바람이 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되어 드리고 싶다”는 말을 전했다. 한영애는 지난해와 올해 광화문 촛불 집회 무대에서 시민들과 만났고, 세월호 3주기 추모 무대에도 올라 음악으로 위로를

건넸다. 단지 자신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누군가에게 안도감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의 화법이 노래였기 때문에 소리를 낸 것이지 거창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소신을 밝혔다.

Q. 지난해와 올해, 광화문과 문화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사람 사는 소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송고한 연대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를, 필요한 곳에 가서 한 것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행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요.

Q. 그런 의미에서 ‘조울’이란 곡도 더 특별했고, 깊은 울림을 줬죠.

노랫말이 사람들 마음에 와 닿은 거겠죠. 잠자는 하늘님이 어서 깨어나 어지러운 세상을 조율해주었으면 하는. 20년도 더 된 곡인데 이 노랫말이 여전히 공감한다는 건,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부분이 그대로라는 의미도 있는 걸 거예요.

Q. 음악 외 관심사나 취미는 무엇인가요?

특별히 없어요. 제때 밥 잘 먹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나무를 늘 바라보는 것.

Q. 나무요? 그리고 보니 ‘바람’이란 곡의 첫 소절도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나무처럼’이네요.

땅속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며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Q.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어떤 음악인으로 기억되고 싶은 신가요?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전 음악을 오래 했을 뿐이지, 지혜롭고 선하고 모두의 이로움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저 제가 부른 노래가 일상 한 구석에 있고, 누군가 불쑥 그 노래를 듣고서 순간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게 행복이고 영광인 거예요. 한영애는 기억 안하셔도 됩니다(웃음).

2017 한영애 콘서트 <바람>

일시 11월 3일(금) 오후 8시
11월 4일(토) 오후 6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가격 R석 5만원, S석 4만원
출연 한영애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INTERVIEW

‘다른 듯 같은 듯’ 미래를 꿈꾸는 우리

지휘 이규성, 거문고 공영은, 바이올린 김영지

각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계기는 다르다.

성악을 전공했다가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에 이끌려(이규성),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국악을 듣고(공영은), 또 아버지가 손에 쥐어주신

바이올린이 좋아서(김영지).... 하지만 모두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로,

음악하면서 힘들었던 건 “만 번 정도”라며 너스레를 떨면서도 끝없는 연습을 이겨내고 있다.

또 하나 공통점,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젊은 음악인 지원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각각 마스터클래스 지휘 부문(2013, 2014, 2016), 마스터워너비,

경기영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프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또는 독주무대를 앞두고 있다.

공영은은 9월 23일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에서 거문고 협주곡으로 무대에 섰고,

김영지는 10월 독주회로, 이규성은 11월 경기필 순회공연으로 청중과 만날 준비 중이다.

공연에 앞서 이들, 차세대 주목 받는 젊은 아티스트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김영지 | 바이올린, 이규성 | 지휘, 공영은 | 거문고



| 기회 |

이규성(이하 이) 지휘를 공부하는 학생이 프로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수 있는 기회는 한국에서 많지 않아요. 때문에 '마스터클래스'는 당연히 무조건! 도전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든 지휘자들은 오케스트라와 연주할 수 있는 기회에 갈증을 느끼거든요.

공영은(이하 공) 작년에 '마스터워너비' 공연을 보고 신선했다고 느꼈어요. 모집 포스터도 인상적이었고. 20대에 협연을 하는 건 흔치 않은 기회여서 프로그램 오디션을 보게 됐죠.

김영지(이하 김) 학생으로서 많은 연주 기회를 갖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경기영아티스트'는 독주회나 협연을 비롯해 실내악까지, 다양한 연주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매력적이었죠.

| 차이 |

이 독일에선 학생과 프로 오케스트라와의 연주 기회가 좀 더 많아요. 하지만 연주자의 공식적인 피드백은 없죠. 마스터클래스에선 단원분들이 재능기부로 함께 해주시는데, 연주자들의 시각에서 상세한 피드백을 전해 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공부에 도움이 돼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공, 김 저희는 이번이 연주자 지원 프로그램 첫 참여라... 그래도 뽀빠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무대에 서기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연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 도움 |

이 프로 오케스트라는 한정된 시간에 리허설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구조인데, 마스터클래스를 통해서 나름의 노하우가 정립됐어요. 세 번째 참가했을 때는,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라는 어려운 곡을 연주해낸 뒤 자신감도 많이 붙었습니다.

공 첫 연습 때 국악 오케스트라와 제 거문고가 '대화'를 했는데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제 악기 소리만 듣다가 협연자로서 오케스트라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지휘자와 같이 호흡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김 전 이제 시작이지만, 이번 프로그램이 단발적인 연주 기회를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연주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훈련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학생에겐 더욱 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거란 기대를 갖고 있어요.

| 대중 |

이 저도 아직 클래식이 어려워요. 다만 재미없다는 건 선입견이죠.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레 편견이나 선입견은 사라질 텐데.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음악을 즐기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건 아쉽고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슬로건도 있거든요.

조아라 주임PD(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의 중심에서 대중과 소통하는'입니다.

이 맞아요!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해요. 독일에서도 최근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했었는데, 클래식 본고장이고 시장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미래의 관객이기 때문이죠.

공 홍대 카페에서 친구들과 국악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관객 대부분은 연주자 지인들이어서... 대중에게 국악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속상했죠. 오히려 외국인들은 국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엇보다 국내에서의 활성화가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길거리공연이나 대중적인 음악을 국악으로 연주해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김 그래도 옛날보다는 유튜브나 SNS의 발달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레이첼 같은 스타 바이올리니스트도 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새로운 팬을 만들어가잖아요. 물론 아직은 클래식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긴 하죠. 음악을 좋아해도 공부하느라 기회를 갖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규성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 무대 |

김 음악가로서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섬세한 연주가 필요하죠. 소리나 표현 양식? 예를 들면 작은 악상기호부터 시작해 프레이징, 화음 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공 맞아요. 테크닉도 중요해요. 그래도 연주자가 자신감이 없으면 객석에서 느껴더라고요. 무대의 완성은 자신감이죠! 그러려면 결국 연습을 많이 하고요.

이 무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몰입이에요. 지휘자가 음악에 몰입하지 못하면 연주자도 몰입하지 못하고, 관객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반대로 모두가 몰입해서 보여주면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관객에게 감동을 전한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맥락이네요.

| 매력 |

이 지휘하면서 들었던 칭찬 중에, 경기필하모닉 단원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진실해서 좋다'고. 지휘자는 직접 소리를 내지 않으니 허세가 있을 수도 있고 솔직하지 못하거나 포장할 때도 있는데 연주자는 못 속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주자의 칭찬이 더 기억에 남고 감사합니다.

공 제 연주의 매력이라기보다, 바라는 게 있다면 거문고 특유의 소리에 저만의 색깔을 더해서 전달하고 싶어요. 연주를 들으면 '공영은의 연주'인 걸 알 수 있게. 테크닉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도 싣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연주자로 매력을 전하고 싶어요.

김 무대에서 부담이나 스트레스 없이 온전히 집중하는 게 아직은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몰입했을 때 관객들의 몰입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 연주만의 매력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 미래 |

이 연주자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항상 진실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공 무대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못 해봤지만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요...

이, 공 벌써 그런 걸? (김영지 양은 20대 초반, 이규성 군 공연은 양은 20대 후반이다.)

김 각박한 경쟁 속에 내면의 감정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예요. 다른 친구들은 취업 시장에 나가 경쟁하고, 음악가들은 연주 기회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콩쿠르에 나가고... 스트레스도 많고 사회가 삭막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치이다 보니 내면의 감정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연주를 통해서 그걸 일깨워 줄 수 있는, 연주를 듣는 순간만큼은 자신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치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응원 |

이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할 만한 위치는 아니고, 영지는 학교 후배지만 나보다 더 잘 할 테니까. 다만 발레리나 강수진 선생님의 책에서 와 닿았던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의 때와 상황에 집중하라."

공 맞아요.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저나 후배들만 봐도 항상 경쟁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행복하게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연주자들은 무대에서 제일 행복하잖아요.

김 오늘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서 저 역시 힘도 얻고 위안도 받았습시다. 힘들 때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열심히 해요!

판

INTERVIEW

관객 마음을 품어 소통으로 꽃핀

경기도립무용단 <판> 스테이지에 선 단원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가까이. 그리하여 춤 '판'을 확 뒤집었다.
기존에 없던 스토리텔링과 콜라보레이션을 앞세워 평범한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다.
경기도립무용단은 예술가와 관객의 벽을 허물고, 그들만의 창의를 녹여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관객들을 인도한다.
관객과 소통의 폭을 넓히며 무대의 판을 신명 나게 이끈 다섯 무용수를 만났다.

경기도립무용단 기획공연 <판>

일시 10월 21일(토) 오후 5시

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

출연 경기도립무용단

가격 전석 1만 7천원

관람연령 만 5세 이상

문의 031-230-3440~2

무대에서 찾는 행복, 그리고 소통

강렬하게 내뿜는 에너지와 예술의 끼 그리고 도전과 변화로 점철된 젊은 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의 이용문, 이영진 수석단원과 이현아, 김혜연 상임단원은 작품 <판>과 함께 풍성한 시너지를 냈다.

“끼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량과 개성을 발휘하는 의미로도 ‘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립무용단이 야심 차게 선보인 기획공연 <판>은 독립된 레퍼토리 중심이었던 일률적인 춤사위보다는 개개인의 성향이 진득하게 묻어나는 몸짓의 언어를 질게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한 작품이다. 전통에 기반을 두지만, 그 자리에 창익과 현재를 채우며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새로운 시도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무용수들에게 변화와 성장을 안겨준 작품이기에 의미가 남다르다. “제가 춤을 추게 된 계기이자, 한국무용의 깊이를 알게 해준 문동복춤을 20여 년 만에 다시 선보이면서 춤을 새롭게 연구하고 또 춤에 매료됐어요. 그 과정들이 정말 행복했죠.” 이영진 단원의 혼을 불태운 문동복춤은 <판> 작품 중에서 다시 보고 싶은 작품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총 6회의 시리즈를 잇고 있는 <판>은 공연마다 다른 스토리와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의 공감을 끌어냈다. 매달 새로운 주제로 안무를 구성하는 과정에 큰 재미와 희열을 느낀 단원들은 빈틈없는 호흡으로 공연장을 밀도 있게 채워나갔다.

“안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창작무 ‘한여름 밤의 악몽’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었던 이현아 단원은 함께하는 춤의 경우 개인적인 생각을 교류하고 상대의 소리에 집중하는 안무를 구성하면서 작품 속 시너지 효과가 배가됐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무대에서 느껴지는 뭉클함에서 작품의 생명감은 더없이 꿈틀댔고, 무용수로서 기쁨을 맛보는 건 응당했다.

더구나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암전 없이, 레퍼토리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구성이 몰입을 높이며 작품 전체에 진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지루할 틈 없이 전개되는 스토리와 주제의 다양성에 관객의 호응도는 점점 높아졌다.



“무용수들은 감정과 몸짓 하나하나에 호응하는 관객들의 뜨거운 눈빛에 행복해지고, 관객들의 평가 한 마디에 큰 에너지와 용기를 얻는 겁니다.”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거리고, 아름다운 몸짓에 감탄하며 애절한 춤사위에 울림을 받은 관객들은 그렇게 무용수들과 소통했다.

새로운 시도, 예술의 가치를 높인다

이번 작품은 경기도립무용단과 경기도립극단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도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말보다는 암호와 같은 몸짓으로 가득했던 무대가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공연으로 무대 앞을 넘어, 무대 안으로 관객을 끌어들이었다.

“스토리 전개 시에 극단 단원들의 내레이션, 대사 등의 연극적인 요소가 풍부히 가미돼 작품의 완성도가 한층 극대화된 듯해요. 저희에게는 새로운 도전인 셈인데,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싶습니다. 무용수들이 예술가로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면 어느 분야든 가까이 도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예술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도전에 서슴없는 입단 23년 차 대선배 이용문 단원의 말처럼, 틀을 벗어난 무용수들은 무엇이 됐든 분명 이전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기존과 다른 아름다움과 감동을 창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술가라 부른다. 그들의 눈과 귀는 늘 다름을 향해 열려있다. 그 다름을 창조하려는 단원들은 일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주는 열정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책을 읽는 것, 이처럼 경험하는 예술은 창조하는 예술로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무용수마다 자신만의 춤 스타일과 접근 방법이 다른데 제 영감의 주 원천은 책이에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공감되는 책을 통해 영감을 얻고, 제게 와 닿는 글귀에서 유추하면서 접근하는 식이죠.” 김혜연 단원은 <판>에서 선보인 ‘제삼자화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되,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춤에 녹여내는 진솔함을 보였다.

또 한 뼘 성장한 날들

<판>은 어느새 다섯 번의 공연을 마쳤고, 오는 10월 21일이 마지막 공연이다. 단원들에게는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그득하다. 막내 김동훈 단원에게 이번 작품은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창작무를 처음 선보인 작품이라 <판> 공연은 제게 성장의 발판이 됐죠. 창작춤의 매력을 알게 되어 자신감도 얻었고요. 제 내면에 잠재된 모든 역량을 쏟아내 완성한 작품이기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긴 시간 서로 호흡을 맞추고 그 속에서 관객과 한바탕 어우러진 <판>을 쏟아낸 단원들은 황홀감과 더불어 스스로도 한 뼘 성장했음을 느낀다.

전통춤의 원형에 창작춤을 가미하고, 지방의 춤까지 다양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경기도립무용단. 좀체 따라 할 수 없는 호흡 때문에 오롯이 한국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장르인 만큼 한국무용에 대한 그들의 열의는 빛났고 자부심은 드높았다. 이제 한국무용의 문턱을 더 낮추고, 관객의 눈높이에서 춤의 언어를 쉽고 재미있게 끌어내려는 고민과 노력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판>에서 그러했듯이, 전통의 맥을 각색하고 살아있는 예술가의 철학이 담긴 무용수로, 늘 발전된 모습으로 관객을 맞이하고자 하는 단원들의 의지는 다음을 또 기대하게 했다.

예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술을 통해 관객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면 예술가 또한 행복의 기쁨을 누리리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경기도립무용단. ‘판’이라는 꽃을 피워 ‘소통’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더 깊이, 더 단단히 뿌리내릴 일만 남았다.



책부터 공연까지! 욕심쟁이 문화꾼

경기도문화의전당 <모니터-G> 활동가 안준희 씨



'훌륭한 충고보다 값진 선물은 없다'는 말이 있다.
4년째 경기도문화의전당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준희 씨는
너무 많은 '독설'과 '지적질'을 해서 미안하다고 표현했지만,
전당 입장에서는 매달 '값진 선물(?)'을 받고 있는 셈.
안일해지지 말라고, 당연해지지 말라고, 더 노력하라고 말이다.

<모니터-G> 활동가라 행복해요

한마디로 생각이 넘쳤다. 1년에 100회. 전시든 공연이든 문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진 안준희 씨인 만큼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모니터 활동가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다는 건 분명 그녀에게 행복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아이들을 닮은 싱그러운 에너지까지 투명하게 비친다. 2014년 봄, 우연히 경기도문화의전당 <모니터-G> 활동가를 모집한다는 공고 보고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 어느덧 4년째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 중인 안준희 씨는 가깝게는 용인 포은아트홀을 비롯해 멀게는 예술의전당 및 세종문화회관까지 넓은 문화예술 환경을 갖고 다양한 공연을 만끽하는 열혈 공연 마니아다. "저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문화공연을 즐기는 거예요. 저만의 자양강장제죠.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접해도 되지만, <모니터-G> 활동가로 함께하다 보면 좋은 공연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고, 기관에 제 생각도 보낼 수 있어 기뻐요. 전당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도 있고요."

이게 바로 조상 <모니터-G> 활동가의 위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014년부터 경기도립예술단 모니터링 활동가 선발·운영해 오고 있다. 보다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전당 산하 4개 도립예술단의 공연 모니터링은 물론, 안락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선사하고자 시설과 서비스면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사실 저는 지적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니터링 활동가예요. 초창기에는 공연 자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고, 공연장 음향이나 낡은 시설에 관해서도 독설을 날렸죠. 소극장 여자 화장실의 칸수가 적은 것까지도요(웃음). 그런데 시설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연적인 면에서는 도립예술단의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기에는 저희 모니터링 활동가들의 보고서도 조금은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웃음)."

안준희 씨는 현재, 시립과 도립을 거쳐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모니터 요원으로 겸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경기도립예술단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도 생겼다. 슬그머니 <예술과만남>에 대해서도 평가를 부탁했다.

"공연을 보면 눈에 더 띄는 단원분도 있고 더 알고 싶은 단원분도 있는데, 이를 소개하는 꼭지가 있어 좋아요. 다음 공연 때 그분들이 더 잘 보인 달까요? 기회가 되면 '기획자'와 '기획 과정'에 대한 콘텐츠도 다뤄보면 어떨까요? 특히 창작극의 경우 누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엿볼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참, 그마저도 내년에 도립예술단 페스티벌은 안 열리나요? 각 도립예술단에서 반응이 좋았던 액티스를 모아 꾸미는 무대라 관객의 만족도도 높고, 낯선 장르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역시 모니터 요원계의 조상(?)답게 안준희 씨의 예리한 안목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내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길

한편 문화생활과 모니터링 활동은 그녀를 '더 열심히 살게' 했다. 직장을 다니며 이 모든 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 체력, 비용, 어느 하나 놓칠 수 없기 때문.

"퇴근 후 공연을 보려면 업무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하니까 집중해서 일하게 되고, 부지런히 공연을 보러 다니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니까 운동도 하게 됐죠. 그뿐인가요? 다양한 예술 장르에 관심이 생기면서 공부도 해요. 결국, 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끝으로 그녀에게 모니터 대상으로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어떤 곳인지 물었다.

"총류요. 도서관 십진분류표의 총류는 백과사전을 비롯해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데 밑바탕이 되죠. 경기도문화의전당도 클래식을 더 좋아하던 제게 다른 장르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눈을 확장시켜준 곳이랍니다." 모니터 요원과 사서의 얼굴을 모두 드러낸, 그녀다운 대답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모니터-G>는 '경기도립예술단 공연 모니터링 활동가'로 매년 3월 선발해 1년간 공연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STORY

A B O U T
C U L T U R E

R Y

54

예술, 수작을 걸다 I
국악, '밀당의 기술'이 필요하다

예술, 수작을 걸다 II
한국 대중음악 공연의
어제와 오늘

62

예술과 인문학
원작의 힘 ;
무대에서 만나는 원작들

66

예술, 즐기기
열린 우체통



국악, ‘밀당의 기술’이 필요하다

글 윤종강 국악 평론가, 연출가

‘밀당’이란 말을 자주 쓴다. ‘밀고 당김’의 준말이다.

원래 연애했을 때의 미묘한 심리싸움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잘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통용되기도 한다.

이런 ‘밀당’이란 말을 ‘국악’에 적용해 보자. 밀당의 대상은 청중 혹은 관객이다.

현재 국악인들은 국악과 관련해서 청중과 밀당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국악과 국악인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 밀당에 있어 하수인 셈이다.



돈화문국악당 <낮잠 콘서트>

국악이여! 가지 마라! 오게 하라!

내가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상대가 나에게 자주 다가온다면?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국악’이 때때로 그러하다.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국악인들이 너무 달려간다. 국악의 대중화! 물론 좋은 말이다. 사람들이 국악을 편하게 즐겨준다면 더없이 좋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다가가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하고 외친다고, 상대가 국악을 좋아하게 될까? 이젠 그들에게 가지 말고, 그들을 오게 만들었으면 한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국악이 일반인들에게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악에 대한 기시감 곧 데자뷔(deja vu)에 기인한다. 사람들을 국악을 잘 모르면서도, 국악을 어느 정도 안다고 느낀다.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국악을 조금이나마 접했고, 지금 당장 국악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대상이라고도 여긴다. 이것이 곧 국악이 새로운 대상으로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다.

기시감(데자뷔)에서 미시감(자메뷔)으로

국악에 관한 기시감을 미시감으로 바꿔야 한다. 국악에 관한 데자뷔를 자메뷔(jamais vu)로 바꿔야 한다. 국악은 내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이고, 마치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것과 ‘밀당’을 하듯, 국악도 청중을 대상으로 밀당을 해야 한다. 대중을 너무 외면해서도 안 되겠지만, 대중에게 너무 다가가도 안 된다.

국악은 어떻게 미시감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국악을 어떻게 잘 포장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하다. 내용물은 같아도,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여 관객을 오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작품의 질이 ‘콘텐츠’에 의한 것이라면, 국악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간 내가 접근했던 방식은 ‘틈새’ 혹은 ‘경계’다. 흔히 국악은 전통음악, 창작음악, 그리고 퓨전국악 등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여기 그 어떤 것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음악이 있다.

1930년대가 미시감을 만들어낸다

1930년대의 음악은 아주 매력적이다. 시대 자체가 매우 열려 있었다. 동서(東西), 고금(古今), 아속(雅俗)이 넘나들던 시대였다. 이 시대의 지식인은 어떤 한 곳에 갇혀있길 원치 않았다. 단군 이래 이 땅의 역사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충실하면서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자유인인지 모른다. 그들 중에서는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런 용어는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실제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도 여러 면에서 더욱 열려 있었다.

그들은 노래에 있어서도 가리지 않았다. 이 당시의 노래는 신민요, 만요, 가요, 재즈라는 네 장르가 공존했는데, 이 노래를 넘나드는 가수가 등장했고, 이런 음악을 모두 즐길 줄 아는 청중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런 음악적 장르의 ‘경계’에서 오히려 더욱 새롭게 신선한 것들이 탄생될 수 있었다. 국악에 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념 혹은 식상함을 없애려면, 특히 국악관계자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주력 향상이 미시감을 만들어낸다

연주의 정교함도 미시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즘 국악계의 관현악단이나 여러 공공단체에서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 국악 관객을 확보하려 힘쓰지만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 자체가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우선 국악인들은 이걸 극복해야 한다. 국악기가 연주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악적’ 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더불어서 ‘비(非) 국악적’ 음악을 ‘국악기’로 연주했을 때, 청중들을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국악기와 국악관현악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도립국악단의 ‘치세지음 프로젝트’는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국악기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가는 과정이다.

과거에도 서양음악 혹은 대중음악을 국악기 혹은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한 경우는 있었으나, 그것은 때론 ‘이벤트’가 되기도 하고, 음악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불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치세지음 프로젝트’는 다르다. 궁극적으로 국악기와 관현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악관현악이 담아낼 수 있는 음악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지리라고 생각된다.

전통적 방식이 미시감을 만들어낸다

요즘 국악 공연이 참 많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공연 자체에 들어가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참신한 공연이 눈에 띄는 건 무척 반갑다. 서촌공간 서로의 <깊은 사랑> 시리즈, 돈화문국악당의 <낮잠 콘서트>가 그런 좋은 예다. ‘깊은 사랑(舍廊)’은 과거 우리나라 좌창(坐唱)이 소통되던 공간이었다.

판소리에만 ‘귀명창’이 있는 건 아니다. 지난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경성좌창(京城坐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는 말하자면 ‘세미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고급청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인데, 이런 노래가 소통되는 한 공간이 바로 ‘깊은 사랑’이었다. 조선적인 살롱음악이라고 얘기해도 좋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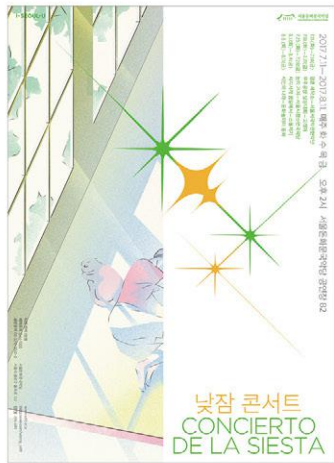
서촌공간 ‘서로’의 ‘깊은 사랑’은 바로 과거 이런 공간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면서, 경기민요를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의 ‘깊은 사랑’을 만들어가는 공연을 하는 것이다. 서구식 공연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전통적인 좌식(坐式) 공연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우리에게 더욱더 미시감을 주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시간적 변화가 미시감을 만들어낸다

돈화문국악단의 <낮잠콘서트>는 지난해 여름 오후 2시대를 겨냥한 콘서트로 적잖은 호응을 얻었다. 유럽인들의 ‘씨에스타’(낮잠자기)를 콘서트에 적용함으로 휴식 같은 국악곡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힐링을 경험하게 해준 콘서트였다. ‘피로사회에 지친 대한민국에게 보내는

치세지음 프로젝트

경기도립국악단 치세지음 프로젝트의 본질적 목적은 음악적 역량강화이다. 전통악기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악기 개량을 통하여 음역대와 전자음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립국악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악의 음악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악기를 보편악기로 성장시키는 물론, 나아가 국악을 세계 속에 우뚝 선 보편음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낮잠 콘서트(제공 | 돈화문국악당)



깊은 사랑(제공 | 서촌공간 서로)



서촌공간 서로 <깊은 사랑>

작은 오아시스라는 카피도 설득력이 있었다. 이 공연의 콘텐츠는 실제 다른 공연의 레퍼토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후 2시라는 시간대와 낮잠이라는 휴식으로 접근했기에, 청중들에게 새롭고 편안한 공연이었다. 새벽에 듣는 정악(正樂), 자정에 듣는 무악(巫樂)도, 국악을 미시감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좋은 방식이다.

‘미시감’은 곧, 익숙한 국악을 신선한 공연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국악의 대중화의 방식으로 쉬운 편곡, 익숙한 노래 등을 국악기로 연주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젠 분명 ‘맛보기’ 혹은 ‘감초’로서는 기능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악’으로 소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국악을 어떻게 담아서, 관객들에게 맛을 보여야 할 것인가는 지금의 국악관계자들이 즐겁게 고민해야 할 숙제다.

주변과 동네에서 출발한 콘텐츠가 재밌다

국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시스템, 스토리, 스타일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 특히 공공극장은 자체 내의 시스템을 활용해 좋은 국악공연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스토리와 스타일이다. 지금의 존재하는 국악 레퍼토리를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이야기에서 출발하면 더욱 좋다. 텍스트는 먼 곳에서 찾을수록 허황되다. 관심도 줄어들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자신의 주변, 공연장 주변의 얘기일수록 흥미는 점증된다. 다음은 이런 것을 어떤 스타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사람들은 흔히 유행을 서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전통 속에서도 유행은 계속 변해왔다. 1970년대의 한복과 2010년대의 한복을 생각해보자. 분명 한복의 범주지만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전통의 ‘시대적 변화’를 포착하는 것도, 국악을 미시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결국 많이 보고 들으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깊을수록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국악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국악을 미시감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고, 더불어서 국악의 새로운 유행(트렌드)가 되어주길 바라노라.

STORY

한국 대중음악 공연의 어제와 오늘

글 김성환 음악 저널리스트



패티김 리사이틀

한국에서 '대중을 위한 음악'으로서 매표(賣票)라는 과정을 통해 음악 제작자와 수용자가 분명하게 구별돼 진행되는 '대중음악 공연'의 모습은 개화기를 지나 일제강점기인 20세기 초반에서야 나타났다. 물론 일제 강점기 초반에는 음악이 주인공이 되는 공연이 아닌, '신극'이란 연극 공연 속에서 극 사이의 막 전환 시간 동안 외국의 가곡 등을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중반 일본을 통해 외국의 음반 회사들이 한국에도 진출하기 시작했고, 유성기 음반이 국내에 더욱 많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새로 나오는 음반의 판촉을 위해 해당 가수들이 공연을 여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리고 1930년대로 와서는 각 음반사가 악극단을 조직했으며, 이때부터 공연을 섭외하는 프로모터도 생겨났다고 한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는 미군 부대 위문을 위한 쇼 공연단들이 국내에 들어온 영향을 받아서 악극단이 '쇼단'으로 불리기도 했고 여러 연예인이 동시에 나와

스탠딩 코미디부터 노래, 춤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지는 소위 '버라이어티 쇼' 형식이 대중음악 관련 공연의 다수를 차지했다. 음반을 내는 가수들 역시 라디오 방송을 뺀다면 다 이런 쇼에서 노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6.25라는 전쟁의 참상을 겪으면서 이런 쇼들은 군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힘겨운 일상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고, 특히 미8군 부대에서 진행되는 쇼들을 위해 선발된 가수와 연주자들은 이후 한국 대중음악계의 토양을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한국의 대중음악 공연계에서는 특정 가수의 단독 공연이 늘어나면서 소위 '리사이틀(recital)'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원래는 클래식 공연에서 '독주회', '독창회'를 의미하던 단어였지만, 대중음악 공연에서도 '특정 음악인이 주인공이 되는 단독공연'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1962년 가수 패티김이 피카다리 극장에서 단독



췌시봉 콘서트

공연을 열었을 때 타이틀에 이 단어가 처음 쓰였다고 한다. 이후 여러 유명 기성 가수들이 리사이틀로 대중과 만나기 시작했고, 대중음악 공연의 흐름은 단독공연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해외 가수들의 내한 공연은 초기에는 한국 내 외국인들만을 위한 전용 공연 형태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는 일반인들도 관람이 가능했다. 특히 1969년 10월 16일 서울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클리프 리처드(Cliff Richard)의 내한 공연은 엄청난 여고생과 여대생 팬들의 열광 속에서 진행되면서 객석에서부터의 '속옷 던지기'가 있었다는 루머까지 언론에 나도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로 이어지면서는 극장이나 시민회관 등의 기존 상설 공연장 외에도 명동의 셀브루, 쉼시봉, 오비스캐빈 등을 시작으로 음악 살롱이나 음악다방, 그리고 연주 밴드가 서는 고고클럽 등에서 포크 가수들의 공연이나 록 밴드들의 공연들이 열렸다(양희은, 윤형주, 김세환, 송창식, 조영남 등 1970년대를 주름잡았던 가수들도 이런 곳들의 무대에서 그들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단독 리사이틀의 대척점에서 이런 소규모 공간의 공연들은 미군부대 무대를 넘어서 해외의 음악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젊은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한편, 1972년 12월 2일 서울 시민회관의 화재 사건 이후 건설된 세종문화회관은 한동안 대중음악 공연을 허가하지 않았기에 리사이틀은 체육관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연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공중파 방송국들이 주최한 '서울국제가요제', '세계가요제' 등이 열리면서 과거에 비해 해외 아티스트들의 내한 무대의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대중음악공연계에서는 '리사이틀'이라는 이름 대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콘서

트'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한국에서는 1978년 산울림의 문화체육관 공연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형 가수들의 체육관, 예술회관을 대관한 공연부터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이 섰던 대학로 등 전국의 소극장에서 공연들까지 모두 '콘서트'로 호칭되면서 우리가 현재 만나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 형태의 거의 모든 형태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 한편, 민주화와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대중음악 공연은 그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했고, 해외 아티스트의 단독 내한공연도 과거에 비해 더 활발해졌다.

199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 대중음악 공연 문화가 더욱 만개하게 되는 출발점이었다. 비록 뉴 키즈 온 더 블록(New Kids on the Block) 내한공연의 사례와 같은 인명 피해의 비극도 있었지만, 해외 내한공연이 붐물 터지듯 밀려들면서 한국의 음악공연 개최 규모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그리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입은 신세대들에게 1990년대 가요계의 스타를 선택할 주도권이 돌아가면서 서태지와 아이들, 공일오비 등 싱어송라이터급 뮤지션들부터 이후 아이돌 보이밴드, 걸그룹에 이르기까지 콘서트는 젊은이들의 문화적 관심과 열정, 그리고 팬심이 한 데 모여 폭발하는 '젊음의 축제'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인기가수들은 이제 서울을 넘어서 지방 체육관들을 다니며 '전국 투어'를 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대학로에는 대중음악 전문 소형 공연장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작은 규모의 대중가요 공연들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하나 둘 씩 생겨난 '클럽'들은 기존 가요계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음악적 개성을 중심에 두었던 인디 밴드, 인디 뮤지션들의 공연 활동 터전이 되어주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후에도 기존 방식의 아티스트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출처 | 인천관광공사



라이브클럽데이

단독 콘서트는 여전히 활발하게 열리고 있지만,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중음악 공연 가운데 새롭게 부각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한 행사에 여러 아티스트들이 다채롭게 참석하는 '음악 페스티벌' 일 것이다. 1999년 야심 차게 열렸으나 폭우로 중단된 트라이포트 록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부산 록 페스티벌, 동두천 록 페스티벌 등에 이어 2006년 시작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2007년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09년 밸리 록 페스티벌까지 '록 페스티벌'은 한국에서 음악 매니아들과 음악을 배경으로 야외 피크닉 및 휴식을 즐기고픈 대중에게 주목받는 음악 공연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제는 봄, 여름, 가을 가릴 것 없이 매달 열릴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해졌고, 다양한 만큼 팝·록, 일렉트로닉, 흑인음악 등 특정 음악을 강조하는 페스티벌도 많아졌다. 특히 규모가 큰 페스티벌일수록 유명 주류 아티스트부터 인디 계열의 신진 아티스트까지 한 자리에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즐거움도 배가 됐다. 한편, K-POP에 대한 국제적 팬들의 반향 속에서 아이돌 중심의 댄스 팝 그룹들의 연합 공연 페스티벌이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자주 개최될

만큼 주류와 인디 가릴 것 없이 음악 페스티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함을 보이고 있다.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선 단독 콘서트이든, 음악 페스티벌이든, 홍대에서 거의 매달 열리고 있는 클럽들의 원 패스 연합 공연 '라이브 클럽 데이'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널려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도 9월 이하이·자이언티콘서트에 이어 10월 이문세콘서트를 연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공연에 감동을 느끼러 가는 것이 개인적 만족은 가장 크겠지만, 평소 관심을 둔 음악 장르에서 더 다양한 음악을 만나고 싶을 때나 연인과 친구, 가족들과 '음악적 휴식'을 즐기고 싶을 때 여행 대신 즐기는 음악 페스티벌의 재미도 만만치 않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다양한 음악들에 귀를 기울일 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에 대한 즐거움에 도전해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와 함께 음악인들과 기획자들은 앞으로도 보다 다채로운 공연들을 꾸준히 기획하여 음악을 사랑하는 대중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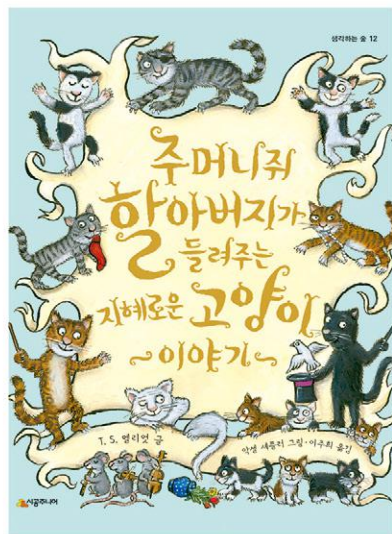
*참조문헌: 김창훈, 『콘서트 제작과 기획 실무』

S T O R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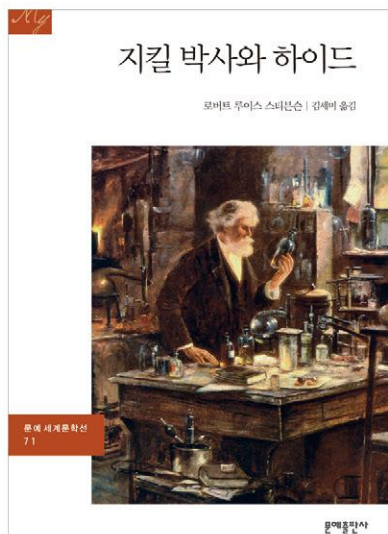
원작의 힘 ; 무대에서 만나는 원작들

글 박혜은 경기도립국악단 기획실 주임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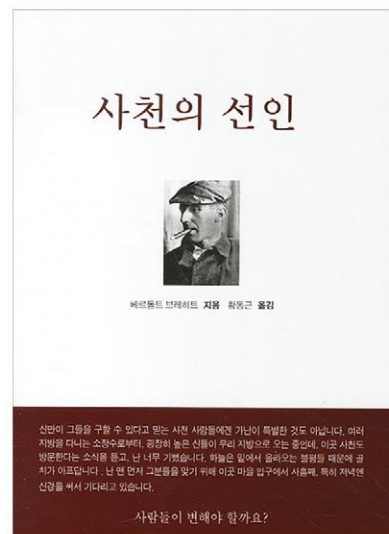
오랫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의 공통점이 있다면 ‘원작’을 바탕으로 각색한 탄탄한 스토리와 세대 및 국적을 불문하고 지속적인 공감대를 무대로 옮겨와 연출했다는 점이다. 인생 최초로 공연장을 찾는 관객이라면 원작 공연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작품 선택의 반은 성공이다. 최근에는 원작을 그대로 옮겨온 라이선스 작품보다 원작의 모티브를 가져와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작품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뮤지컬 <캣츠> 원작
『주머니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
출판사 | 시공주니어
저자 | T.S. 엘리엇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원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
출판사 | 문예출판사
저자 |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국악공연 <사천가> 원작
『사천의 선인』
출판사 | 예니 출판사
저자 | 베르톨트 브레히트

<지킬 앤 하이드>, <엘리자벳>, <모차르트>, <마리 앙투아네트>, <캣츠>….

공연 타이틀만 들어도 알만한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원작이 있다는 점이다.

<지킬 앤 하이드>는 소설 『보물섬』으로 유명한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는 선과 악을 대립하는 중세적인 잔재와 빅토리아 시대 유행하던 스릴러 괴담 그리고 당시 태동하던 과학주의가 어우러져 인기를 끌었다. 뮤지컬은 한 사람 안의 다른 두 인격이 대결을 벌이는 스릴러적인 요소에,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은 루시와 엠마를 등장시켜 로맨스물로 만들었다. 하지만 원작공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다. 브로드웨이에서 3년 동안 꽤 긴 공연을 했지만 적자를 보았고, 일본 공연도 성공하지 못했다. 스릴러적인 내용이 뮤지컬과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달랐다. 2010년 홍광호가 출연했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9개월간 지속하면서 3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27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월간 『더 뮤지컬』 박명성 편집장은 롯데카드 공연칼럼을 통해 국내 제작사인 오디컴퍼니가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한국화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엘리자벳>, <모차르트>, <마리 앙투아네트> 또한 극작가 미하엘 쿤체(Michael Kunze)의 작품이다. 1938년 출간된 영국 소설가 대프니 듀 모리에(Daphne Du Maurier)의 소설과 영국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Alfred Hitchcock)의 영화를 토대로 제작됐다. 200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초연한 이후 일본, 러시아, 헝가리, 독일, 스위스 등에서 공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틱하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아름다운 음악 등으로 원작보다 더 큰 인기를 얻으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캣츠>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TS엘리엇의 시(時)를 바탕으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고양이 축제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원작 제목은 『주머니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지혜로운 고양이 이야기』다.

책 속에서 만나는 매력 만점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풍자와 고양이들만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데, 공연을 보기 전 책을 읽어보면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책 속의 상상을 현실로 실현해 주는 것이 원작 모티브 공연의 힘일 것이다.

언제부터 원작을 무대에서 만났을까?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세계적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지만 국내에서는 출판계와 공연의 경계선이 비교적 명확했고, 원작의 작품은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 대부분이었다. 잠시나마 공연계가 호황기를 누리며 창작 뮤지컬에 대한 열풍이 불었지만, 국내 경제 사정에 따라 유동성이 큰 공연시장은 비교적 높은 객석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일지라도 불황기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시기를 극복하고자 본격적으로 공연 제작자들 사이에서 스타성이 있는 주연 섭외, 최소한의 제작비 투자 등 여러 방법을 고안해내지만 무엇보다 탄탄한 스토리와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신뢰도가 높은 원작에 투자하며 스토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관객들 또한 새로운 작품을 구매하기보다 이미 잘 알려진 작품에 티켓비용을

지불하며 원작이 있는 공연은 믿고 보는 작품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더 많은 원작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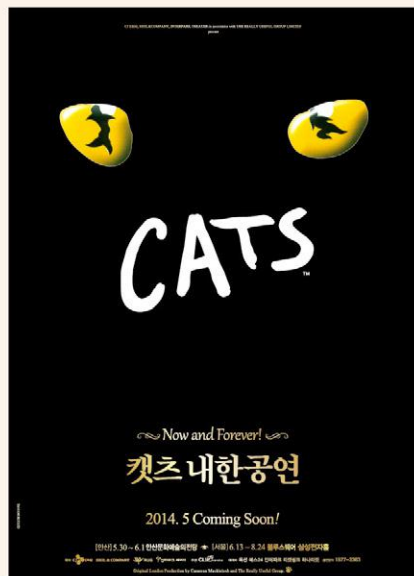
뮤지컬뿐일까?

한국의 판소리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인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천가>는 어떨까? 이 작품은 원래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서사시 『사천의 선인』을 판소리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프랑스 배우 겸 극작가인 에르베 페조디에와 한국학자 한유미 씨 부부에 의해 불어판으로 재해석돼 프랑스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시대를 풍자한 브레히트의 작품이 우리나라 판소리 사설과도 비슷하여 <사천가>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정서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 김애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등 많은 작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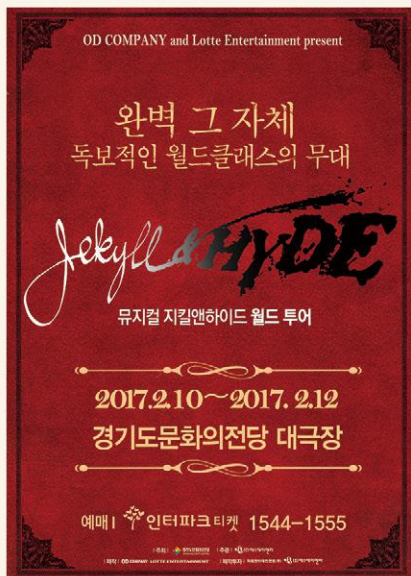
한편, 공연기획자는 대중들로부터 검증된 탄탄한 스토리로 안정적인 작품을 트렌드에 맞게 선보일 수 있으므로 원작 공연을 선호하게 된다. 검증되지 않은 창작품보다 예산투자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제작자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점차 원작을 중심으로 하는 공연들이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세대 불문! 국적 불문! 무대로 오는 원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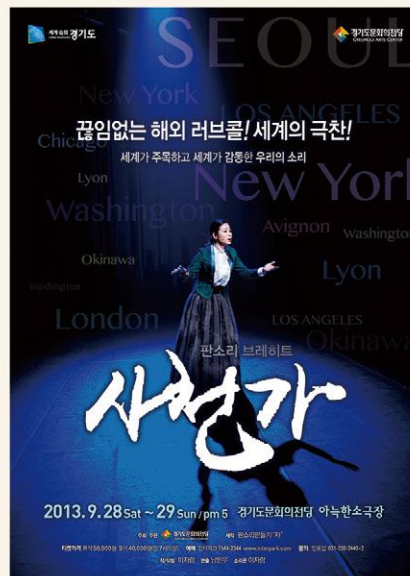
성공한 작품은 무대로 옮겨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대형 작품을 그대로 한국어 버전으로 보는 것이 인기였다. 대중은 한국어로 번안된 작품을 웅장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연의 가치를 느꼈다. 그러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대형작품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정서적 공감도 점점 떨어지게 된다.



뮤지컬 <캣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국악공연 <사천가>

이후 라이선스 작품에도 우리나라 관객의 정서를 담기 시작한다. 특히 관객들의 변화는 어린이 작품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린이 작품에서는 전통음악을 담은 한국적인 국악뮤지컬이 대세다.

최근에는 어린이 공연에서도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에서 『모모』로 잘 알려진 독일의 동화작가 미하엘 엔데 원작 <곰돌이의 여행>과 우즈베키스탄 동화작가 파르하지 라임 하끼모비치의 그림책 <작은 악사>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국내 어린이 뮤지컬로 재탄생했다는 점이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은 동화 속 상상력을 아이들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고, 공연을 본 뒤에는 교훈과 감동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어린이를 위한 원작 공연 <곰돌이의 여행>, <작은 악사> 선보여

원작의 힘을 반영하듯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지난 9월 <곰돌이의 여행>을 선보였다. 10월에는 가족극 <작은 악사>가 무대에 오른다.

<곰돌이의 여행>은 독일의 철학동화작가 『모모』로 유명한 미하엘 엔데(Michael Andreas Helmuth Ende)의 '곰돌이 워셔블의 여행'을 모티브로 경기도립국악단에서 자체 기획한 국악아동뮤지컬이다. 2015년에 초연 후 올해 세 번째 선보인 이 작품은 단순히 원작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원작에 국악동요로 새롭게 작곡하고 경기도립국악단원이 직접 연주하며 전문 소리꾼들이 노래와 연기를 가미해 재구성했다. 그래서일까? 독일 동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음악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98% 이상의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다.

10월에 선보이는 <작은 악사> 또한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동화작가 '파르하지 라임 하끼모비치'의 동명의 그림책을 가족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떠돌이 고아이자 작은 악사인 '모비치'가 엄마처럼 따뜻함을 선물하는 햇살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중앙아시아의 자연,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과 통통 튀는 라이브 음향이 관객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한국 연극 최초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아시아 아트 어워즈' 최고상인 '베스트프로덕션'에 선정된 브리쉬 씨어터의 윤시중 연출과 윤조병 작가, 피정훈 음악감독 등 뛰어난 제작진이 참여했다. 이번 작품은 책 속 이야기를 실제 무대 위에 공연으로 올리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은 악사>는 ACC(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진행한 '2015 아시아 스토리 워크숍'에서 제작한 그림책 『작은 악사』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원작을 무대로 옮겨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원작에 대한 기대가 높은 관객들이 간혹 새롭게 각색된 작품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원작과 비교하며 보는 재미는 물론이고 연출가의 색깔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음악, 체험놀이 등 책에서 만날 수 없었던 오감만족을 무대에서 실현해주는 것이 큰 매력이다. 그래서 책으로 보고, 노래로 듣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원작 공연은 대세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서점과 공연장 어디든 좋다.

논스톱 문화충전이 필요하다면 원작 공연을 찾아보자.



<예술과 만남>이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이번호 <예술과 만남>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건의하고 싶은 점 등
자유로운 의견을 독자 엽서 또는 이메일(magazine@ggac.or.kr)을 통해 전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4분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달 만화가가 꿈인 아이와 함께 '들리는 웹툰 보이'는 클래식'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클래식과 웹툰의 만남이라 참신하면서도 저도, 아이도,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에 흠뻑 빠져 즐겼어요. 그리고나서 <예술과만남>을 보니 김용희 만화가의 인터뷰가 수록돼 있더군요. 괜히 더 작가님이 반가웠습니다. 특히 웹툰작가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쓰고, 많이 그리는 수밖에 답이 없다"는 조언을 남기셨는데 저 역시 아이에게 그 애길 그대로 전해줬어요. 무대 위 만화가 아버지씨의 비법이라면서 말이죠. **김중혁**(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악도 지금 이 시대에 연주되는 현대 음악이지 않은가"라는 말을 보고 저도 뒤통수를 '쿵~'하고 맞았습니다. 국악 하면 오래된 옛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한 번 들어보시라"고 자신하시시는 것처럼 국악은 한번 듣게 되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까딱까딱, 몸을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국악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국악 공연 소식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면 합니다. **임예슬**(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딸 아이가 어느덧 다섯 살이 되어 제법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영화가 생기는 과정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접하게 해주어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과 만남 8+9월호의 <아이와 공연 볼 때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은 저를 비롯한 엄마들에게 유익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었습니다. 공연을 고르는 안목과 공연장에서 애티튜드, 아이와 교감하는 방법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공연 정보를 많이 다뤄주세요. **조인혜**(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여름만큼 페스티벌과 잘 어울리는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예술과 인문학'에서 세계의 클래식 음악축제에 대해 다뤘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음악축제가 공연장의 시즌제 및 교통과 여행의 발달과 관계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된 사실이고,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나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가슴 설레게 했어요. 쉽지 않은 읽었지만, 저 또한 여름을 사랑하는 음악팬만큼 가슴 한 켠에 축제 현장에 있을 제 모습을 품어보려 합니다. 언젠가는 꼭 브레겐츠 축제에 가보고 싶어요! **배대호**(시흥시 정왕동)



삶에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회원 혜택

공연·전시 티켓 구매 시 할인 일부대관 공연·전시 제외	예매 수수료 면제 전화 및 전당 홈페이지 티켓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면제 전당 기획예술단 공연 *온라인회원 제외	경기도립예술단 정기·기획공연 초대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강좌 수강료 할인 교육프로그램 '예술가 꿈' 수강료 5% 할인 *온라인회원 제외
식음료 제휴 서비스 카페 셀란(CELLAN) 음료쿠폰 증정 *골드 연 4매 / 일반 연 2매	<예술과 만남> 우편 발송 *온라인회원 제외	공연 프로그램 복 증정 기획공연·예술단공연 1회 1권 *온라인회원 제외	주차요금 면제 공연·전시 관람 및 행사 참석 시 무료주차 *온라인회원 제외	문자(SMS, LMS),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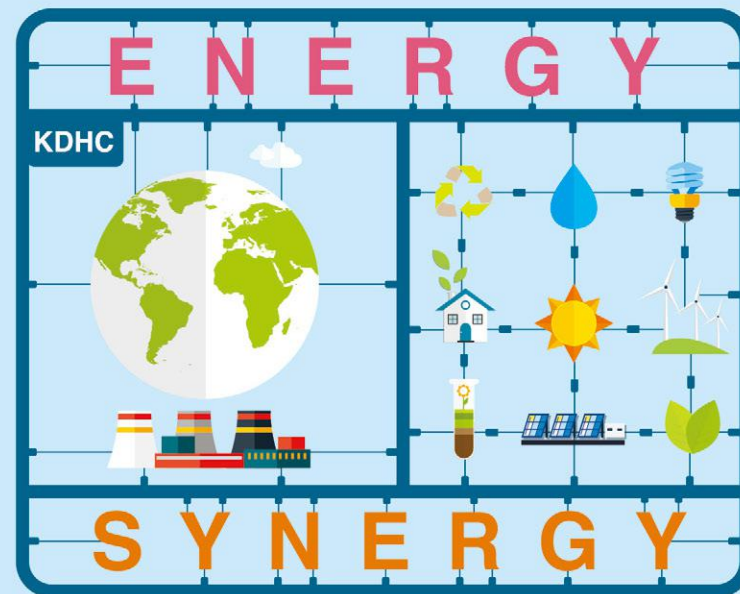
가입 안내

- 연회비 : 골드회원 5만원 / 일반회원 3만원 / 온라인회원 1만원
- 방문 가입 : 경기도문화의전당 미소도움관 내 인포샵 또는 고객센터 방문
웹 회원 가입 : 전당 홈페이지 웹 회원 가입/로그인 후 고객센터 > 아트플러스 유료회원 안내 > 회원가입
- 가입 후 10일 이내 회원카드 등기 발송(온라인회원 제외)

문의

- 전화 031-230-3242
- 팩스 031-230-3275
- 이메일 artplus@ggac.or.kr

SYNERGY
에너지가
나만의 시너지



에너지가 될까요?
시너지가 될까요?

누군가 에너지 그 자체만을 행할 때
우리는 지구를 보듬는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 에너지의 효율성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에 주목합니다
누군가 미래의 에너지만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에너지가 만들 더 큰 시너지를 계획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시너지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www.kdhc.co.kr

NEWS

2017 OCTOBER + NOVEMBER | VOL. 128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맞이 프로그램 선보여

01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여름방학을 맞아 신나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먼저 유니크한 년버벌 타악퍼포먼스를 펼친 경기도립국악단과 웹툰 작가 김윙희의 드로잉쇼가 결들여졌던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청소년 음악회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신한 공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썸머키즈페스티벌(Summer Kids Festival)이 소극장과 광장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뮤지컬, 매직쇼, 비트박스, 비보이, 다양한 체험전 등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에 굿은 날씨에도 3천여 명의 관객들이 찾아 축제를 즐겼다. 시원하고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여름방학맞이 공연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경기도립무용단의 기획공연
<판>시리즈, 마지막회를 앞두고

02

경기도립무용단의 2017 기획공연 <판>시리즈가 10월 21일 피날레 공연을 끝으로 그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3월의 1회 공연을 시작으로 총 6회로 기획된 <판>은 암전이 없는 스토리텔링, 경기도립극단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큰 관심을 받아왔다. 기존의 다양한 레퍼토리는 물론 단원들의 창작무까지 더해져 퀄리티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그 위상을 과시했다. 백성과 나라, 비바람 구름 천둥, 농(農) 등 무게감 있는 주제를 관객들이 이해하기 쉽고 아름답게, 때로는 처연하게 표현했다. 마지막 공연은 SNS를 통해 이번 <판>시리즈 관람객들의 추천을 받아 다시 보고 싶은 무대를 꾸민다.

'일상'을 위한 공간으로의 인식
전환 Dream Making Zone!

03

2017 <DMZ 2.0 예술과 대화>가 공간 인식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9월 21일~23일 개최되었다. '나'와 나의 '일상'을 조명하는 이번 <DMZ 2.0 예술과 대화>의 주제는 'I AM FREE'. 삶의 흐름 안에서 '나'를 보고 나의 '일상'을 조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을 재탄생시켰다. <자이언트&이하이> 콘서트를 시작으로, 박지선 사회에 장기하와 얼굴들, 영화감독 장항준, 정치인 심상정, 밴드 잔나비가 참여한 토론회 경기도 청년 작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야외광장 프로그램까지. 아픔의 땅 DMZ를 Dream Making Zone으로 인식 전환하기 위해 예술과 소통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참신한 오케스트라가 모여
발랄한 축제를 열다

04

전국 각지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모여 뜻깊은 축제를 벌였다.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 축전에 전국 20여 팀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참가해 기량을 뽐낸 것. 1,000여 명의 출연자들이 참가한 이번 축전은 경기지역 11개팀, 기타지역 9개 팀 등이 참여하여 군포문화예술회관, 구리아트홀, 김포아트홀, 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클래식 꿈나무들을 지원하고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축전을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프로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무대 매너와 풍성한 하모니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클래식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10+11

GYEONGGI ARTS CENTER

<컬처테라피 콘서트>
소방공무원 찾아가

05

공연 보러 갈 시간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나섰다. 일터로 찾아가는 공연 <컬처테라피 콘서트>가 하반기에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공연을 선물한다. 9월 5일 분당소방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소방서를 방문해 감사함과 응원을 전달할 예정.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노출되어 일반인보다 4~10배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다. 문화와 예술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젝트 <컬처테라피 콘서트>를 통해 정신건강회복을 돕고자 기획되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앞으로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 극장의
이유있는 변신!

06

경기도민들에게 각종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는 경기도문화의전당에 소소하지만 의미있게 만들어진 공간의 새단장 소식이다. 야외에서 생동감 넘치는 공연과 시원한 객석을 제공했던 썸머무대를 보수하여 아티스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객들에게도 좀 더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귀에 익숙했던 공연장 내의 공연시작 알림 종소리도 교체되었다. 대극장 로비의 인테리어도 바꾸어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고객서비스팀 신혜원 팀장은 "공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홍보물을 점차 디지털화할 계획"이라며 "공연전 알림종과 안내멘트도 1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관객과의 수평적 소통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10 OCTOBER

① 대극장 ② 소극장 ③ 빛나는갤러리 ④ 소담한갤러리 ⑤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⑥ 꿈꾸는컨벤션센터 ⑦ 섀크무대 ⑧ 신나는 아외극장 ⑨ 외부공연 ⑩ 아외광장 ⑪ 초청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⑨ [전곡초등학교]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2	3	4	5	6	7
8	9 ③ [세종대왕릉] 경기도립국악단 한글날 기념식	10 ⑨ [엘림양로원] 경기도립국단 문화나눔31 ⑨ [옥구상가상인회] 경기도립무용단 문화나눔31	11	12 ⑨ [52사단213연대]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31	13 ① 이문세 콘서트 2017 Theatre 이문세	14 ① 이문세 콘서트 2017 Theatre 이문세 ⑨ [양주 회암사지] 경기도립국악단 왕실문화축제
15 ⑨ [동두천] 경기도립국악단 동두천 소오산 음악회	16	17 ⑨ [안산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31	18 ②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김영지 바이올린 독주회 ③ [안동예술의전당]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⑨ [효자병원]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31	19 ⑨ [30사단]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20	21 ② 경기도립무용단 판 ⑨ [도창교육복지센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문화나눔31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22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23 ⑨ [남양주 장현초 병설유치원] 경기도립국단 문화나눔31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24 ⑨ [삼계초등학교]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25 ② 문화가 있는 날 I Love A Piano ⑨ [브니엘 요양원]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31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26 ⑨ [전곡초등학교] 경기팝스앙상블 문화나눔31 ⑨ [군관협력담당관실]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31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27 ①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리 9번 (수원) 창단20주년 기념공연 ③ [당진문예의전당] 경기도립국악단 곰돌이의 여행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28 ①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리 9번 (서울) 창단20주년 기념공연 ⑤ 경기도국악당 윤충강과 함께 하는 트루트에서 아리랑까지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29 ⑨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30 ⑨ [별내중학교]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문화나눔31	31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리 9번(수원) 창단20주년 기념공연>,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리 9번(서울) 창단20주년 기념공연>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2017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VI <김영지 바이올린 독주회>, 경기도립무용단 <판>, 2017 문화가 있는 날 <I Love A Piano>, 2017 경기필 애플루트 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리 9번(수원) 창단20주년 기념공연>, 2017 경기필 애플루트시리즈 III <성시연의 말리 9번(서울) 창단20주년 기념공연>, 경기도립국단 <윤이상 ; 상처입은 용>, 문화나눔31 - 동두천공방작가협회 / 별내중학교 공연

11 NOVEMBER

① 대극장 ② 소극장 ③ 빛나는갤러리 ④ 소담한갤러리 ⑤ 경기도국악당 흥겨운극장 ⑥ 꿈꾸는컨벤션센터 ⑦ 섀크무대 ⑧ 신나는 아외극장 ⑨ 외부공연 ⑩ 아외광장 ⑪ 초청공연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⑨ [덕정초등학교] 경기도립무용단 문화나눔31	3 ① 조수미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 ② 한영애 콘서트 바람	4 ② 한영애 콘서트 바람
5	6	7	8	9 ③ [Musikaliska, Stockholm] 경기도립무용단 2017 북유럽 초청공연	10 ⑨ [세정중학교]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문화나눔31	11 ② 연극 취미의 방 ③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공연
12	13 ③ [Musikaliska, Stockholm] 경기도립무용단 2017 북유럽 초청공연	14	15 ②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김강태 독주회	16 ⑨ [백성초등학교]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문화나눔31	17 ③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벨라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오페라 돈조반니	18 ③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벨라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오페라 돈조반니 ② 가족극 작은 악사
19 ③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벨라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오페라 돈조반니	20	21	22 ⑨ [경기북부지방 경찰청] 경기도립국악단 문화나눔31	23	24	25
26	27	28	29	30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트플러스회원 초대 가능 공연 경기도립국악단 <곰돌이의 여행>, 경기도립국악단 <Master Wanna be 콘서트>

아트플러스회원 할인 가능 공연 조수미 콘서트 <라 프리마돈나>, 한영애 콘서트 <바람>,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공연, 2017 경기영아티스트 콘서트 VII <김강태 독주회>, 라벨라오페라단 창단 10주년 기념 <오페라 돈조반니>, 가족극 <작은 악사>, 문화나눔31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공연



www.ggac.or.kr



twitter.com/iloveggac



www.facebook.com/loveggac



blog.naver.com/ggarts